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음악학 석사학위논문

A. Ginastera의 Harp Concerto Op. 25 에 관한 연구

2015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하프 전공

임 경 하

A. Ginastera Harp Concerto Op. 25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윤영숙

이 논문을 음악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6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과 하프전공
임 경 하

임경하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7월

위 원 장 _____ 이 경 선 (인)
부 위 원 장 _____ 윤 영 숙 (인)
위 원 _____ 최 은 식 (인)

국 문 초 록

알베르토 히나스테라(Alberto Ginastera)는 20세기 아르헨티나의 작곡가로서 민속적인 음악요소와 현대적인 어법을 결합하여 독창적인 작품들을 많이 남겼다. 그는 자신의 음악적 스타일을 제 1기 객관적 민족주의 (Objective Nationalism, 1936년-1947년), 제 2기 주관적 민족주의 (Subjective Nationalism, 1947년-1957년), 제 3기 신표현주의 (Neo-Expressionism, 1957년-1983년) 세 시기로 구분하였는데, 하프 협주곡 제 25번은 1965년 2월에 완성되었으며 제 2기와 3기의 특징을 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히나스테라의 생애를 살펴본 후, 히나스테라의 음악적 경향에 대해 시기별로 알아보았다. 또한 하프 협주곡 제 25번을 악장별로 분석하고, 하프의 전통적인 연주기법과 현대적인 연주기법 외에 어떠한 다양한 현대적인 연주기법이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1악장은 전통적인 소나타 형식 안에서 2분박과 3분박의 조합으로 오케스트라와 하프가 연주되며 기타(Guitar)개방음 형태의 화성 사용, 전통악기의 사용 등 민속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2악장은 일반적인 3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프와 목관악기 위주로 연주되고, 3악장은 하프 카덴차로 시작하여 론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프 협주곡 제 25번의 전통적인 하프 연주기법으로는 알페지오(Arpeggio), 울림음 (Lasciar vibrare), 블록코드 (Block Chord), 하모닉스 (Harmonics), 글리산도 (Glissando), 프레 들라 따블 (pre´s de la table) 연주법이 사용되었고, 현대적인 연주기법으로는 페달 슬라이딩(Pedal Sliding), 손톱 글리산도 (Fingernail Glissando), 휘슬(Whistle), 하프의 타악기적인 연주기법 등이 시도되었다. 이로써, 새로운 하프의 음향효과 가능성을 제시하여 표현력의 확장을 이루었으며 본 논문은 히나스테라 하프 협주곡 제 25번의 분석과, 작품에서 사용된 하프 연주기법 설명을 통하여 확장된 하프의 주법을 효과 있게 사용하여 이 협주곡에 담긴 작곡적 이상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어: 히나스테라, 하프

학번: 2011-21812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P. 1

II. 히나스테라 음악의 개요

1. 히나스테라의 생애----------P. 3
2. 히나스테라의 음악양식 및 특성----------P. 6

III. 히나스테라 하프 콘체르토 Op. 25에서 사용된 하프 연주법 예
1. 하프의 구조와 원리----------P. 10
2. 하프의 전통적 연주기법----------P. 13
3. 하프의 비전통적 연주기법----------P. 18

Ⅳ. 히나스테라 하프 콘체르토 Op. 25의 작품분석 및 연주방법 고찰
1. 작품배경----------P. 21
2. 제 1악장 - Allegro giusto----------P. 23
3. 제 2악장 : Molto moderato---------- P. 31
4. 제 3악장 : Liberamente capriccioso, Vivace----------P. 37

Ⅴ. 결론 ----------P. 44

참고문헌 ----------P. 46

Abstract ----------P. 47

Ⅰ. 서 론

20세기 음악의 주된 양상은 전통의 파괴에서 비롯된 여러 시도들이 난잡한 가운데 음향과 다양한 음악적 요소 및 아이디어에 대한 실험의 장이었다. 미디어의 발달로 인하여 세계 각지의 음악이 광범위하게 전파되면서 작곡가들은 과거보다는 쉽게 다양한 음악적 양식을 접할 수 있었으며, 어떤 작곡가들은 전 시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작곡기법과 자국의 민족적 또는 종교적 선율을 결합하기도 하고, 또 다른 작곡가들은 다른 나라의 음악적 요소들을 적용하여 자신만의 고유한 음악을 표현했다.

민속적인 요소와 현대적인 요소 등 다양한 색채를 보여준 아르헨티나 출신의 알베르토 히나스테라 (Alberto Ginastera, 1916년~1983년) 는 전통 서구 유럽의 음악적 요소와 자국의 민속 음악적 요소를 결합한 라틴 아메리카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그의 작품 활동은 작곡가 자신이 분류한 기준에 따라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1)]

첫 번째 시기는 “객관적 민족주의”(1936년~1947년), 두 번째 시기는 “주관적 국민주의” (1947년~1957년), 세 번째 시기는 “신표현주의” (1957년~1983년)이다. Harp Concerto Op. 25작품은 1965년에 작곡, 히나스테라 작곡 시기 중 2번째와 3번째 시기에 작곡된 작품이다. 1965년 2월 18일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하피스트 니카노르 자발레타의 연주로 초연된 이 작품은, 남미 민속음악의 선율과 리듬, 현대적 음악표현이 어우러져 기존의 하프 곡들 분위기와는 상당히 다르게 강렬한 하프음향을 들을 수 있는 곡이다. Harp Concerto Op. 25는 3악장 구성으로,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제의 대

1) Grout Palisca Burkholder, 민은기, 오지희, 이희경, 전정임, 정경영, 차지원 옮김,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이앤비플러스, 1985, p. 366

비가 보여 진다. 2악장은 하프와 목관악기의 서정적인 연주로 이루어져있다. 3악장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히나스테라 특유의 토속적인 리듬이 강하게 부각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본 논문에서는 히나스테라의 생애를 알아보고 <Harp Concerto Op. 25>곡을 악장별로 나누어 형식, 리듬, 선율을 분석하고, 곡에서의 전통적인 하프연주기법과 현대적인 하프 연주기법에 대해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히나스테라의 음악 세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효과적인 연주 방법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II. 히나스테라 음악의 개요

1. 히나스테라의 생애

히나스테라(Alberto Ginastera)는 1916년 4월 11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태어났다. 스페인계 아버지와 이태리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의 가정은 특별히 음악적 내력이 있는 가정은 아니었으나, 히나스테라는 7세가 되던 해에 음악공부를 시작했고 레슨을 받기 시작했으며, 12세 때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있는 윌리암스 음악원(Williams Conservatory)에 입학, 피아노, 화성학, 음악이론, 작곡 등을 공부했다. 1935년 그의 나이 19세에 윌리암스 음악원을 졸업할 때에는 작곡 금메달을 수상했다.

1936년에는 국립음악원(National Conservatory of Music)에 입학하여 아토스 팔마(Athos Palma)에게 화성학을, 호세 안드레(Jose Andre)에게는 작곡, 호세 힐(Jose Gil)에게는 대위법을 배웠다.

히나스테라는 국립음악원 재학 당시 들었던 드뷔시(Claude Achille Debussy: 1862-1918)의 「바다(La Mer)」(1905)와 스트라빈스키(Igor Feodorovich Stravinsky: 1882-1945)의 「봄의 제전(Le Sacre 여 Printemps)」(1913)를 인상 깊게 들었다고 한다. [2)]

1937년에는 바르톡의 영향을 받아 <아르헨티나 춤곡(Danzas Argentinas, Op. 2)>을 작곡 했다.[3)] 1938년 히나스테라는 Psalm 150(찬송가 150)을 제출하며 최우등으로 음악원을 졸업한 후, 1941년에는 국립 육군사관학교(National Military Academy)의 작곡교수로 임명된다. 1941년에는 아르헨티나를 배경으로 하는 발레음악곡 작곡가로 미국 가무단 측으로부터 제의를 받게 되는데, 1943년 발레곡 「에스탄시아(Estansia)」Op. 8 발표로 히나스테라는 아르헨티나의 문화의 전수를 음악 안에서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국민주의 음악의 선두주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다. 그러나, 1945년 우파적 성격을 가진 페론(Peron)정권이 아르헨티나 정권을 잡으면서 히나스테라는 민족주의 성

2) Gilbert Chase,, “Alberto Ginastera”, The Musical Quarterly, vol. 43, No. 4(October, 1957), p. 440

3) Alberto Ginastera, "Homage to Bela Bartok", Tempo No. 136(March, 1981).

격을 가졌다는 이유로 교수직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그해 12월 미리 받은 구겐하임 장학금으로 1945년부터 1947년 3월까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 대학들의 음악학교와 음악프로그램들을 살펴봤고, 1941년에는 탱글우드(Tanglewood) 작곡 강의에서 작곡가 코플랜드(Copland)를 만나 그의 지도에서 영향을 받게 되어 더욱 국제적인 안목을 키워갔다. 미국 방문을 기점으로 히나스테라는 변화의 시기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로 오페라에 관심을 갖게 된다. 오페라 작곡가로서 히나스테라는 1964년 7월 콜론 극장에서「돈 로드리고(Don Rodrigo)」Op. 31(1964) 작품을 초연으로 오페라 작곡가로 유명해졌다. 그의 두 번째 오페라「보마르초 (Bomarzo)」Op. 34(1967)는 지나친 성(性)의 표출로 5년 동안 금지되었지만, 5년 후인 1972년 4월 29일 콜론 극장에서 큰 호평 속에 초연되었다. 세 번째 오페라「베아트릭스 센시(Beatrix Cenci)」Op. 38(1971)은 워싱턴 케네디센터 오페라 하우스의 개관식에서 초연되었다.

1948년 다시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돌아온 히나스테라는 국제 현대음악 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Contemporary Music)을 조직하여 아르헨티나의 음악교육과 작곡에 힘쓰며 작품을 쓰는 등 활발한 활동을 했다.

1948년에는 아르헨티나 국립음악원 교장직을 맡게 되었으나, 1952년 페론정권의 끊임없는 압박으로 아르헨티나 국립음악원의 교장직을 박탈당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작품 활동을 계속하였다. 같은 해에 히나스테라는 미국 카네기협회와 펜실베니아 여자대학의 위촉을 받아「피아노 소나타(Piano Sonata)」No. 1, Op. 22(1952)를 작곡하였는데, 1952년 11월 29일 피츠버그 현대 음악제에서 Johanna Harris의 연주로 초연되었다.

1955년 페론 정권이 붕괴되자 히나스테라는 음악원 교장으로 재임명 되었으며, 1957년에는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Caracas)에서 열린 라틴 아메리카 작곡 콩쿠르의 심사위원을 역임하며, 아르헨티나 국립 예술 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Fine Arts of Argentina)회원이 되었고, 1958년에는 Musical Arts and Sciences at the Argentine Catholic University의 교장 직위를 맡았다. 같은 해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제 1회 미대륙간 음악제(Inter-American Music Festival)에 참가하여 줄리어드 현악 4중주단의 초연으로「현악사중주(String Quartet)」No. 2, Op. 26(1958)가 호평을 받게 되면

서 국제적인 작곡가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 교육에도 관심을 보였던 히나스테라는 1962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라틴아메리카 고등음악 연구소를 창설하였다. 히나스테라는 고등음악연구소로 남미의 음악도들에게 자유로운 실험 정신을 키우고 세계 각국에서 방문한 작곡가들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남미의 젊은 작곡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1968년 아메리카 예술 문학 아카데미(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s)의 회원이 되었으며, 예일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다.

히나스테라는 1941년 첫 결혼을 하였으나, 1969년 첫 부인과 결별하고 1971년 아르헨티나의 첼리스트인 나토라 (Aurora Natola)와 재혼하여 스위스 제네바 (Genova)로 이주하여 정착하게 된다. 1971년에는 아르헨티나 문화 교육 담당 장관으로부터 예술부문에 대한 국가 대상 (National Grand Prize for the Arts)을 수상하였다.[4] 1975년에는 템플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오랜 투병생활을 하다가 1983년 6월 25일 생을 마감하였다.

4) D. Schwartz-Kates, “Ginastera, Alberto”,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Stanly Sadie(ed.)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td., Vol.IX, 2001, p. 876

2. 히나스테라의 음악양식 및 특성

첫 번째 시기인 객관적 민족주의(Objective Nationalism)는 히나스테라가 1936년 국립음악원 재학시절부터 미국으로 건너가 2년 동안 머물렀던 기간까지인 1936년부터 1947년이다. 두 번째 시기는 주관적 민족주의 (Subjective Nationalism)로 미국에서 아르헨티나로 돌아온 해인 1947년부터 1957년이다. 세 번째 시기는 신표현주의(Neo-Expressionism) 시기인데, 1957년부터 1983년으로 민속적인 요소보다는 현대적인 작곡어법을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객관적 민족주의 시기의 작품들은 아르헨티나의 민요와 춤곡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표현했으며 민속적 선율요소를 분명하게 표현하였다. 대부분의 피아노 작품들은 이 시기에 작곡되었다.

이 시기에 작곡된 음악의 특징으로 잉카의 3도 또는 4도로 구성된 화성과 잉카의 5음 음계가 자주 사용되었다. 또한 히나스테라는 그의 특징적인 기법으로 아르헨티나 민속음악의 전형적인 악기인 기타의 코드도 음악에 재현했다. 객관적 민족주의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당김음과 변박자를 사용하여 리듬변화를 다양하게 표현하였고 반주부는 오스티나토를 사용하여 타악기적인 리드미컬한 요소를 보여주었다. 빠른 악장에서는 겹박자를 많이 사용하였고, 느린 악장에서는 잉카음악의 2박자 계통이 주로 사용되었다.

이 시기의 작곡된 주요작품으로는 다음과 같다.

<표 1> 객관적 민족주의의 주요작품

작품번호	작품명	작곡년도
Op. 1	Panambi(Ballet)	1934-36
Op. 2	Danzas Argentinas(Piano)	1937
Op. 6	Three Pieces(Piano suite)	1940
Op. 7	Malambo(Piano)	1940
Op. 8	Estancia(Ballet)	1941
Op. 12	Twelve American Preludes(Piano)	1944
Op. 15	Suite de Danzas Criollas(Piano)	1946
Op. 16	Pampeana No. 1(Chamber music)	1947
Op. 17	Ollantay(Orchestra)	1947
Op. 18	Toccata, Villancico and fuga(Organ)	1947
Op. 19	Rondo sobre temas infatiles argentinos(Piano)	1947

주관적 민족주의 시기에는 객관적 민족주의와는 다른 작곡기법으로 멜로디에 비중을 두면서 상승과 하강을 대립시키며 긴장감을 표현하거나 리듬의 대조, 갑자기 변화되는 감정으로 인한 분위기의 반전 등을 나타내었다.

주관적 민족주의에서 '주관적' 이라는 말의 의미는 음악을 들었을 때 청중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오직 작곡가 본인만 알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상징적인 방식을 선호하여 작곡했다는 의미에서 명명한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민족주의 음악적 어법과는 차별된, 히나스테라 본인의 독자적인 음악적 표현을 우선시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주관적 민족주의 시기에 히나스테라는 유럽과 미국에 체류하였기 때문에 아르헨티나의 대중문화를 접하는데 있어서 제한적이었다. 그러한 이유로 민속요소를 절제하고 12음기법[5] 과 무조성, 복조성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객관적 민족주의에 이어 주관적 민족주의 시기에도 기타의 개방음(E-A-D-G-B-E)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의 형태의 화성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에 작곡된 <Piano Sonata No.1 Op. 21>를 예로 들면 복조성과 12음 기법을 사용하여 작곡되었지만 선율의 동기와 주제에 사용된 리듬의 긴장감은 아르헨티나의 민요를 직접적으로 이용하진 않으면서 아르헨티나의 억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 시기에 작곡된 주요작품으로는 다음과 같다.

<표 2> 주관적 민족주의의 주요작품

작품번호	작품명	작곡년도
Op. 20	String Quartet No. 1	1948
Op. 21	Pampeana No. 2(Chamber)	1950
Op. 22	Piano Sonata No. 1	1952
Op. 23	Variaciones concertantes (Orchestra)	1953
Op. 24	Pampeana No. 3 (Orchestra)	1954
★Op. 25	Harp Concerto	1956-1965

5)12음기법; 표현주의 음악가인 쇤베르크(Arnold Schonberg 1874-1951)가 창시한 좀더 '조직적'으로 무조음악을 만들어내는 작곡기법이다. 즉 조성음악에 존재했던 으뜸음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1옥타브 안의 12개음(흰건반 7개, 검은 건반 5개)에 모두 동등한 자격을 주어 이를 일정한 산술적 규칙에 따라 배열 진행시키는 음악이다.

신표현주의는 1958년 작곡된 <String Quartet No. 2, Op. 26>부터 시작된다. 이 시기 히나스테라는 자신의 감정을 주관적으로 표현하고자 시도했고 이 시기를 신 표현주의라 한다. 신표현주의 시기에는 민속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12음 기법, 4분음 (quartet tone)의 사용과 표현의 극대화를 위한 미분음정(micro-interval)의 사용, 기악과 성악을 사용한 전위음악, 우연성 등의 여러 가지 현대적 기법을 시도하였다.

또한 초자연적이고 "마술"이라는 소재를 중시했는데, 이러한 요소는 <String Quartet No. 2>의 Presto magic악장과 <Piano Concerto No. 1>의 Scherzo allucinate 악장, 그리고 <Piano Quintet Op. 29>중 Scherzo fantastico에 나타난다.

<Piano Sonata No. 1> 이후 29년 만에 작곡된 <Piano Sonata No. 2 Op. 52>는 5음 음계의 사용은 물론 미분음정(micro-interval) 과 인디언의 북소리를 연상시키는 새로운 소재를 시도하였고, 마지막 작품인 <Piano Sonata No. 3 Op. 55>에서는 인디언과 스페인의 리듬이 캐논형식으로 얽혀 있으며 단악장을 구성되어 있다.

히나스테라의 말기 작품에서는 새로운 작곡양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닌,
순수음악에 대한 향수와 초기 민속음악 양식을 추구하기도 했다.

이 시기의 작곡된 주요작품으로는 다음 페이지의 <표 3> 과 같다.

<표 3> 신표현주의의 주요작품

작품번호	작품명	작곡년도
Op. 26	String Quartet No. 2	1958
Op. 27	Cantata para America magica (Voice and Orchestra)	1960
Op. 28	Piano Concerto No. 1	1961
Op. 29	Piano Quintet	1963
Op. 30	Violin Concerto	1963
Op. 31	Don Rodrigo(Opera)	1963-64
Op. 32	Bomarzo(Voice and Orchestra)	1964
Op. 33	Concerto per corde(Concerto for Strings)	1965
Op. 34	Bomarzo(Opera)	1966-67
Op. 35	Estudios sinfonicos(Orchestra)	1967
Op. 36	Cello Concerto No. 1	1968
Op. 37	Milena(Cantata)	1971
Op. 38	Beatrix Cenci(Opera)	1971
Op. 39	Piano Concerto No. 2	1972
Op. 40	String Quartet No. 3	1973
Op. 41	Punena No. 1(Flute)	1973
Op. 42	Serenata(Chamber music)	1973
Op. 44	Popol vuh(Orchestra)	1975
Op. 47	Sonata (Guitar)	1976
Op. 52	Piano Sonata No. 2	1981
Op. 55	Piano Sonata No. 3	1982

Ⅲ. 히나스테라 하프 콘체르토 Op. 25에서 사용된 하프 연주법 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oncerto Harp는 19세기 Double Action Pedal Harp 보다 크기고 커지고 기능을 보완, 증가시킨 악기이다. 악기의 기능성을 크게 증가시키게 됨으로써, 하프를 위한 작품 작곡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독주악기로써도 다른 악기와 동등한 지위에 서게 되었다.

히나스테라 하프콘체르토 Op. 25에서 사용된 하프의 연주기법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Concerto Harp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알아보고, 어떠한 하프의 전통적인 연주기법과 현대적인 연주기법이 사용되었는지 알아보려한다.

1. 하프구조와 원리

현재 하피스트들이 연주하는 하프는 Concerto 하프로 47개의 줄과 7개의 페달로 음을 조절할 수 있다. 악기에 줄이 많은 관계로 '도(C)'는 빨간색, '파(F)'는 검은색이나 파란색으로 줄 색깔을 다르게 표시하였다. 악기의 줄 길이가 짧고 가늘수록 고음이고, 줄의 길이가 길고 굵을수록 저음이다. 하프의 소리는 줄을 튕기면 음들이 진동이 울림판을 통해 몸통으로 전달되어 공명이 된다. Concerto 하프의 구조는 크게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둥, 목, 받침, 몸통, 울림판으로 나뉘어져 있고, 기둥의 높이는 약 174cm~190cm, 몸무게는 32kg~45kg 사이로 악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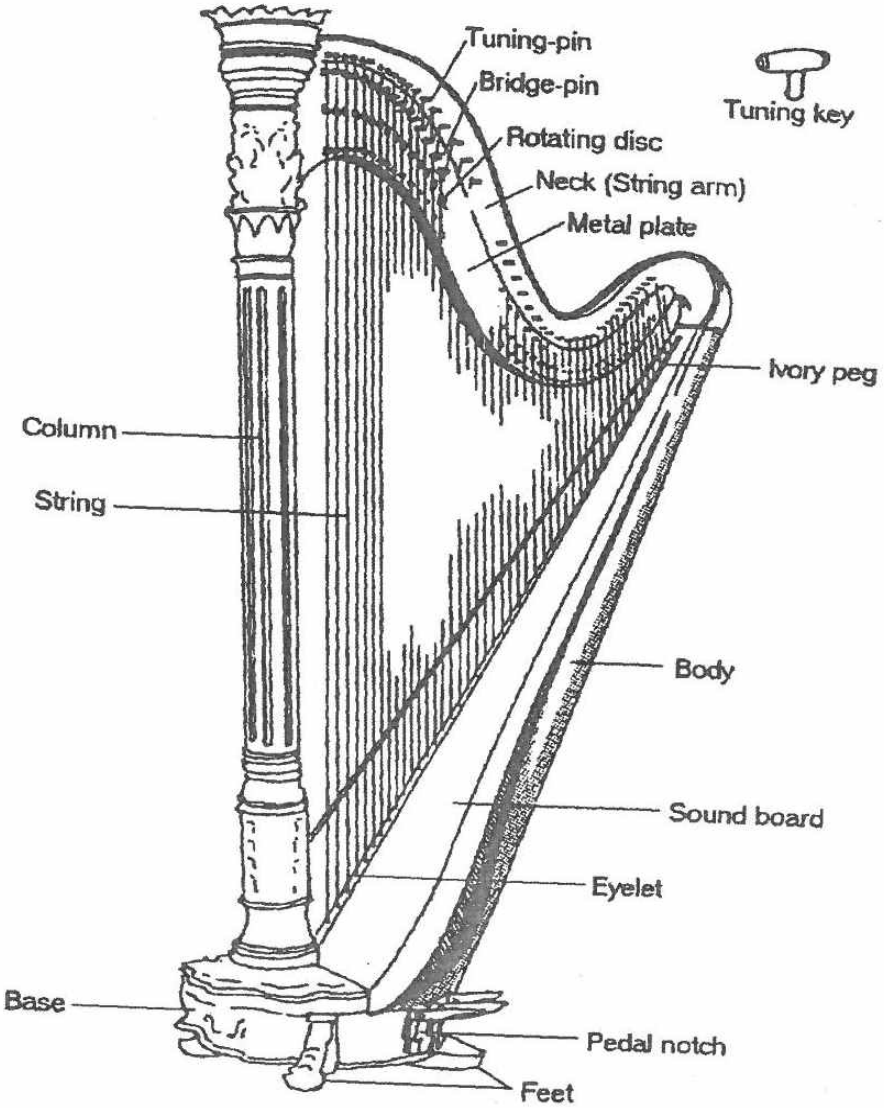
하프를 피아노로 비유해서 설명하면 하프의 줄은 피아노의 흰건반, 하프페달은 검은 건반이다. 하프 페달은 '도'부터 '시'까지 각 음에 한 개씩 연결되어 있다. 각각의 음에 연결된 7개의 페달은 음을 반음 높이고(♯) 반음 내리는(♭) 역할을 하는데, 페달 하나, 예를 들어 '미(E)' 페달을 움직이면 하프에 있는 모든 '미(E)' 음을 가진 줄들이 같이 변하게 된다. 페달은 기둥을 통해 디스크와 연결되어 디스크의 움직임을 조정한다.

하프 페달은 3단계로 조작이 가능한데, 페달이 제일 위턱에 있으면 디스크가 모두 열려 줄이 가장 긴 상태가 되어 원래 음에서 반음 낮은 '플랫(♭)' 상태가 된다. 페달을 중간턱으로 움직이면 두 개의 디스크 중 위에 위치한 Natural 디스크가 닫히면서 줄의 길이는 짧아지며, 반음이 올라가 '내추럴(♮)'상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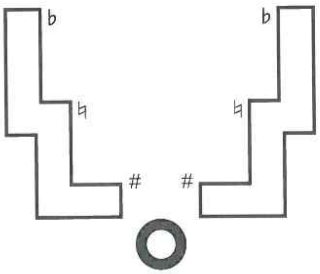
6) ORPHEOUS, 김현욱, 한국 하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2003, p. 19

된다. 즉, 모든 페달을 중간턱에 두면 모든 음에 어떠한 임시표가 붙지 않은 C장조가 되는 것이다. 페달을 아래턱으로 두면 내추럴 디스크(Natural 디스크)와 샵 (Sharp)디스크가 모두 닫히면서 줄의 길이가 짧아져 '샵(♯)'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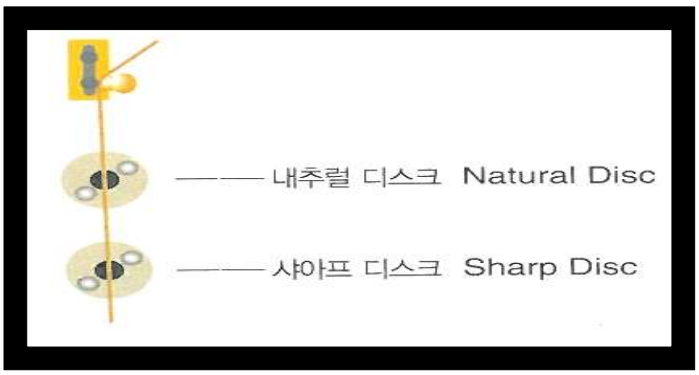
<그림 1> Concerto 하프의 구조 및 세부명칭



<그림 2> Concerto 하프 페달 구조



<그림 3> Concerto 하프 디스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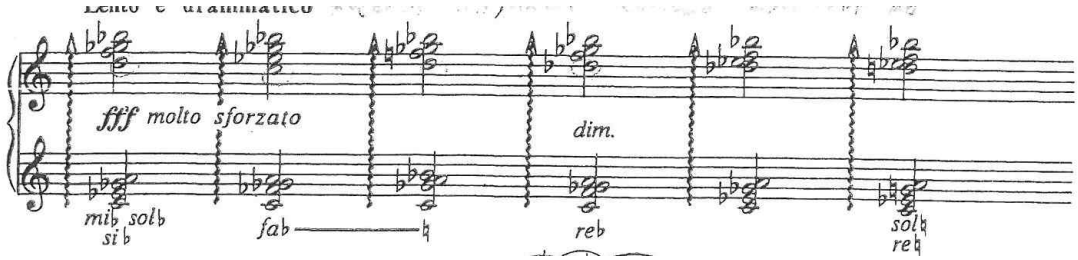


2. 하프의 전통적 연주기법

1) 아르페지오 (Arpeggio)

화음을 분산화음식으로 연결해서 빠르게 연주하는 주법으로 아래에서 위 연주하는 것( ) 과 위에서 아래( )로 연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현재 보편적으로 많이 연주하는 알페지오 연주법은 아래부터 시작하여 화음의 윗 음정이 제 박자에 연주하는 주법을 사용한다. 히나스테라 하프협주곡 악보에는 알페지오 연주방향을 화살표 ( )로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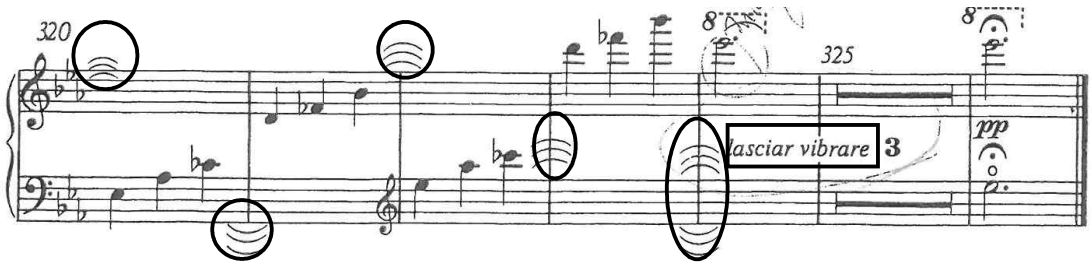
<악보 18> 히나스테라 하프 독주악보 3악장 카덴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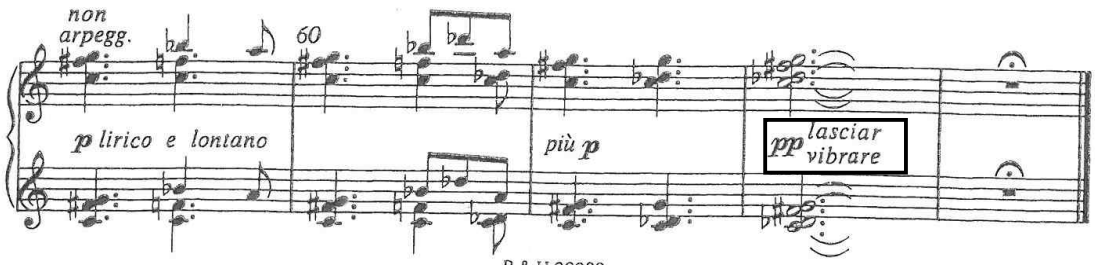
2) 울림음 (Lasciar vibrare)

Lasciar vibrare는 이태리어로 '울리게 두다'의 음악용어로 울리는 음을 인위적으로 멈추게 하지 않고, 울리는 그대로 계속 두어 자연스럽게 소리가 사라지게 하는 연주법이다. 히나스테라 하프협주곡 1, 2악장에는 'Lasciar vibrare 용어표시 및 ( ) ( ) 그림 표기가 되어있다.

<악보 19> 히나스테라 하프 독주악보 1악장



<악보 20> 히나스테라 하프 독주악보 2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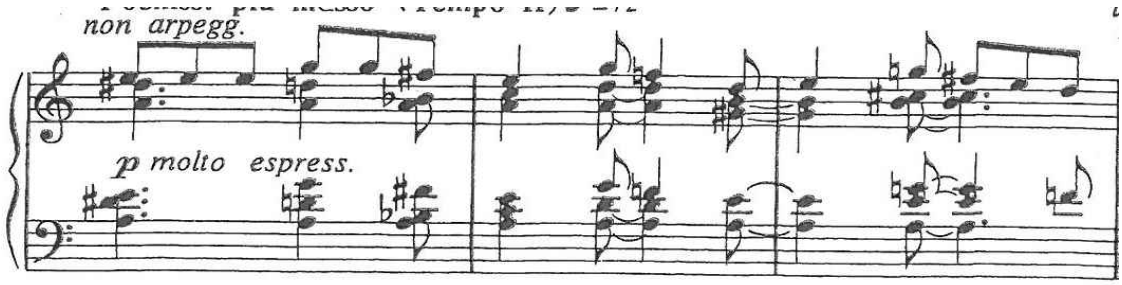


1악장과 2악장 모두 마지막 마디에는 Lasciar vibrare표시를 하여 인위적으로 곡이 종료되지 않고 소리의 울림이 자연스럽게 끝나서 악장이 종료되게 제시했다.

3) 블록코드 (Block Chord)

아르페지오 주법과 다르게 코드를 구성하는 모든 음을 동시에 연주하는 주법이다. 주법표시는 non arp. 또는 secco 라고 표시하며, 히나스테라 하프협주곡 2악장의 하프 선율 대부분은 non arp.로 연주된다.

<악보 21> 히나스테라 하프 독주악보 2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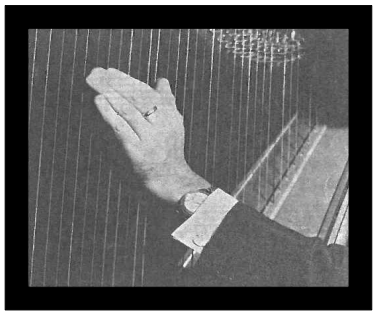
4) 하모닉스 (Harmonics)

하프연주에 있어서 하모닉스는 많이 사용되는 연주기법이며 음 위에 'o'로 표기하며, 실제로 나는 음은 연주음에서 한 옥타브 위의 소리가 나게 된다.[7] 최대 음량은 mf까지이다. 하모닉스를 연주하는 방법은 양손이 각각 다르다. ♮ 상태에서 오른손 하모닉스를 연주할 경우에는 두 번째 손가락 관절의 바깥 부분을 줄의 1/2되는 지점에 대고 살짝 누르고 엄지손가락으로 튕겨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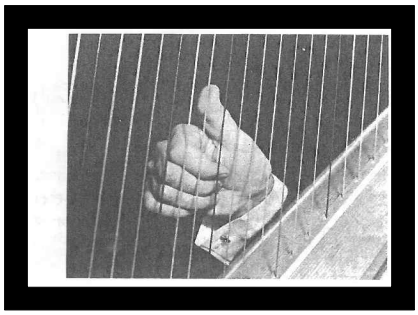
7) Samuel Adler, The Study of Orchestration,「관현악 기법연구」, 윤성현 번역, 도서출판 수문당, 1995, p. 100

주하고, 왼손 하모닉스는 왼손 손바닥의 아래 옆면을 줄의 1/2되는 지점에 대고 엄지손가락으로 튕긴다. ♭과 # 연주시의 하모닉스는 악기 페달의 사용으로 하프 디스크가 움직여 줄의 조임으로 하모닉스 위치가 변하게 된다. ♭일 경우에는 ♮보다 윗부분에서 연주해야 하며, #일 경우에는 ♮하모닉스 위치에서 아래에서 연주해야 울림 있고 영롱한 소리의 하모닉스 연주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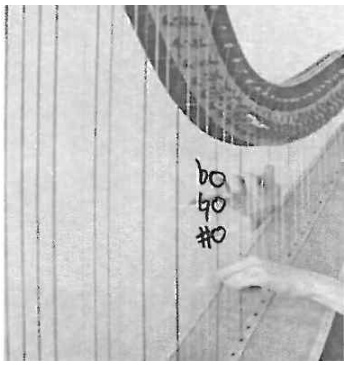
<그림 4> 하모닉스 연주하는 방법[8)]



<왼손 하모닉스 연주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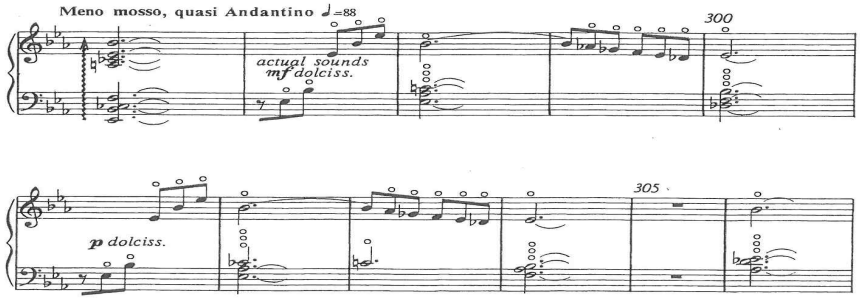


<오른손 하모닉스 연주자세>



<그림 5> ♭, ♮, # 하모닉스 위치 표시

<악보 22> 히나스테라 하프 독주악보 1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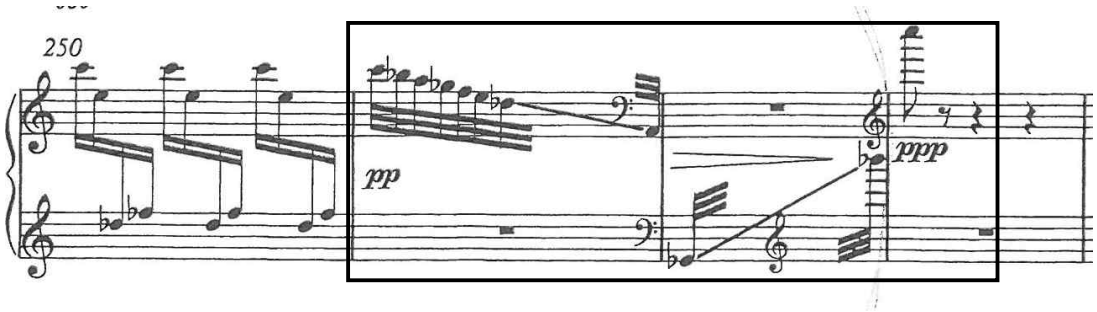


8) PRACTICAL METHOD for GRAND HARP and IRISH HARP, Josef Molnar, ONGAKU NO TOMO SHA, 1991, p.7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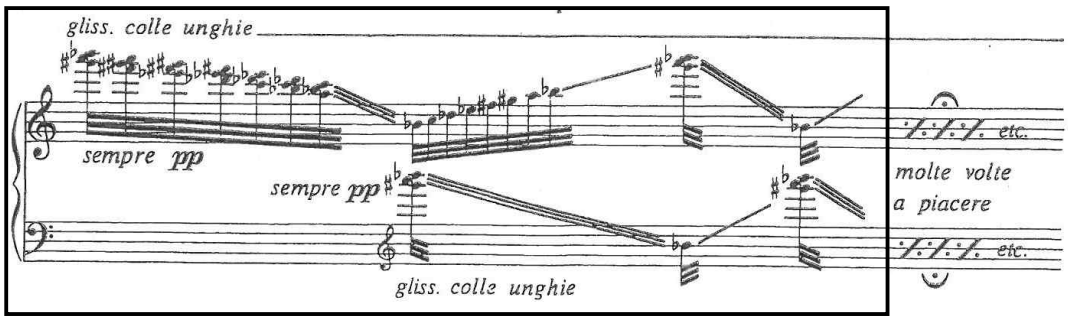
5) 글리산도 (Glissando)

글리산도는 모든 음역에 걸쳐서 연주할 수 있으며, 손가락으로 줄 위의 정해진 음역을 상행이나 하행으로 줄을 가로지르며 미끄러지듯이 연주하는 기법이다. 글리산도 연주 시 손가락은 소리가 잘 울리는 줄의 중간부분에서 연주하며 하행 글리산도는 엄지손가락으로, 상행 글리산도는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손가락으로 연주한다. 글리산도에는 단일 글리산도, 이중 글리산도, 삼중, 사중 글리산도가 있으며, 연주 시 모든 줄이 다 울리게 되므로 글리산도를 기보하는 경우에는 7개 페달의 배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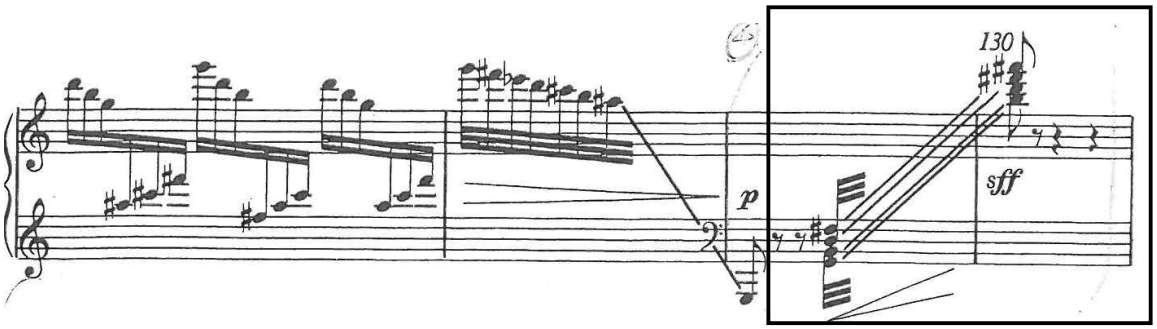
<악보 23> 히나스테라 하프 독주악보 1악장 단일 글리산도



<악보 24> 히나스테라 하프 독주악보 3악장 카덴차 삼중 글리산도



<악보 25> 히나스테라 하프 독주악보 1악장 사중 글리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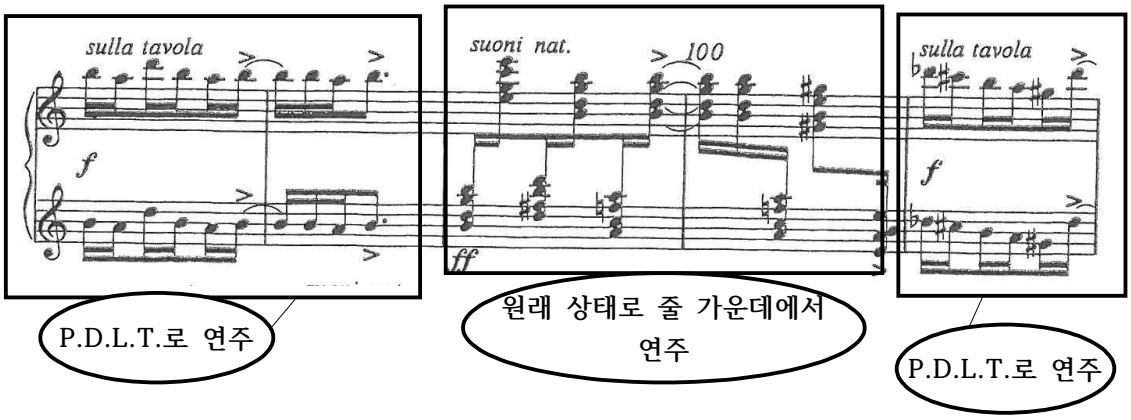


6) 프레 들라 따블 (pre´s de la table)

프레 들라 따블 (pre´s de la table)은 하프의 공명판 근처에서 연주하는 기법이다. 이 연주기법은 낮은 음역대와 높은 음역에선 효과적이지 않으며, 프레 들라 따블로 연주하면 울림이 적고, 쇠소리에 가까운 바삭한 소리가 난다.

<그림 > 효과적인 P.D.L.T. 음역[9)]

<악보 26> 히나스테라 하프 독주악보 3악장



히나스테라 하프 협주곡 악보에는 공명판 근처에서 연주하라는 뜻의 sulla tavola로 적혀있다. 악보에 있는 98마디와 101마디 고음음역대의 P.D.L.T. 는 효과적인 음색을 표현하기에 어려운 부분이다. 악상이 f인 P.D.L.T.로 연주하기 위해 하프연주자는 오른손은 원래위치인 줄 가운데에서 연주하고, 왼손은

9) 작곡가를 위한 현대 하프 기보법, 박근정 저, 도서출판 수문당, 2005, p. 38

공명판 근처의 줄에서 연주하여야 작곡자가 원하는 P.D.L.T. 의 음색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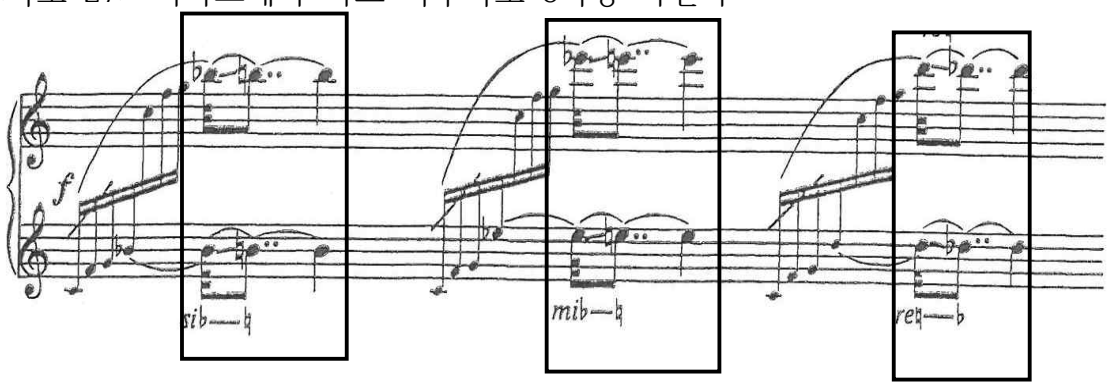
3. 하프의 비전통적 연주기법

전통적인 연주 주법에서 하프 연주 시 페달소리가 들리면 음악에 장애요인이 되었지만, 20세기 때의 현대음악에서는 새로운 음소재로 사용되는 등
기존의 연주주법을 벗어나 과감하면서 색다른 주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히나스테라 하프콘체르토 Op. 25에서의 비전통적인 연주주법들로서는 페달슬라이딩, 손톱을 이용한 소리, 타악기적인 효과, 줄을 문지르는 연주 주법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1) 페달 슬라이딩 (Pedal Sliding)

줄을 손가락으로 튕긴 후, 그 다음에 반음이 변화하는 음정을 손가락이 아닌 페달을 사용하여 다음 음의 변화를 주는 연주법이다. 페달을 사용하여 반음씩 올리거나 내리는 기법으로 반드시 같은 페달의 테두리 안에 있는 온음 또는 반음의 음정이어야 한다. 페달 슬라이딩 연주 시, 반음이 변하는 소리가 매우 빠르게 들리며 온음변화가 ♭에서 ♮, ♮에서 ♭또는 ♮에서 ♯, ♯에서 ♮로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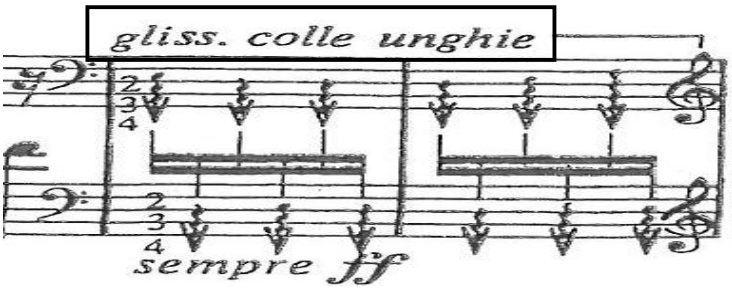
<악보 27> 히나스테라 하프 독주악보 3악장 카덴차



2) 손톱 글리산도 (Fingernail Glissando)

양손의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의 손톱 등으로 아랫방향으로 줄을 번갈아가며 내리치듯이 연주하는 연주기법이며 손톱을 사용하지 않은 글리산도 소리에 비하여 메마르면서도 날카로운 소리를 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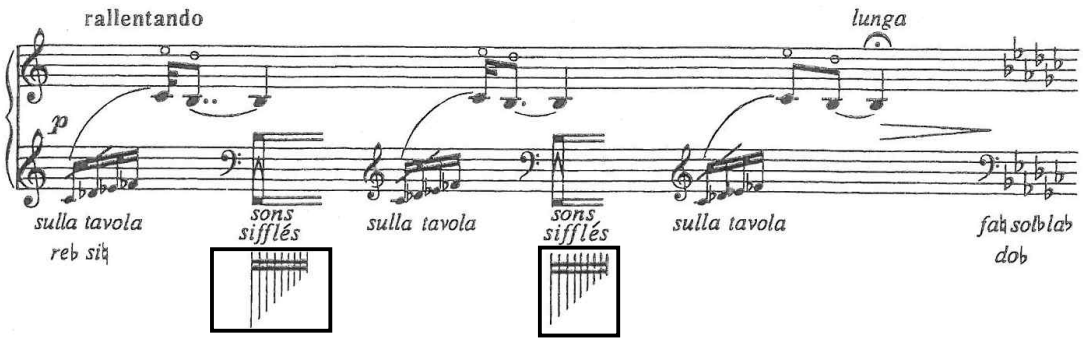
<악보 28> 히나스테라 하프 독주악보 3악장



3) 휘슬 (Whistle)

손가락을 모은 손바닥으로 쇠현 음역을 아래에서 위로 재빨리 문질러 연주한다.
손가락을 다 모은 후 손바닥으로 쇠현 음역을 아래에서 위로 문지르며 연주하면 마치 휘파람 소리 같은 음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10)

<악보 29> 히나스테라 하프 독주악보 3악장 카덴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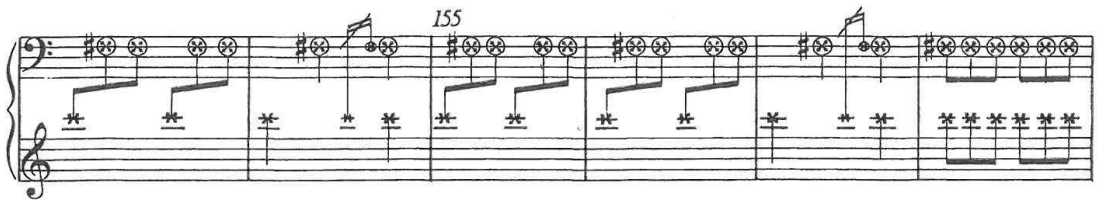
10) 작곡가를 위한 현대 하프 기보법, 박근정 저, 도서출판 수문당, 2005, p. 45

4) 타악기적인 효과

물체나 손으로 소리 나게 하는 방법으로 악기에서 타악기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프에서의 타악기적인 주법은 비교적 다른 악기에 비하여 양손을 자유롭게 연주할 수 있고, 하프의 목, 공명통, 줄 등 다양한 음향을 낼 수 있는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현대음악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

히나스테라가 하프협주곡에서는 연주자가 공명판을 양손 주먹으로 두드리는 타악기적인 주법이 사용되었다.

<악보 30> 히나스테라 하프 독주악보 1악장



Ⅳ. 히나스테라 하프 콘체르토 Op. 25의 분석 및 연주방법 고찰

1. 작품배경

20세기에 들어서며, 새로운 시각에서 음악을 창작하려는 작곡가들과 하프 연주자들은 하프라는 악기의 기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시각을 증진시키려 했고, 이러한 노력은 현대 작곡가들의 흥미를 끌게 하였다.

새로운 시각으로 하프에 접근한 히나스테라는 콘체르토를 1956년에 처음 작곡하기 시작하였다. 하피스트 Edna Phillips와 그의 남편 Samuel Rosenbaum은 히나스테라에게 1958년 Inter-American Festival을 위하여 하프작품의 작곡을 의뢰하였다.[11] Inter-American Festival은 라틴 아메리카 작곡가들의 진지한 현대음악을 세상에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히나스테라의 하프 협주곡은 완성되지 못한 채 Inter-American Festival은 지나가게 되었다. Washington National Symphony 의 하피스트였던 Sylvia Meyer은 Edna Phillips와 Samuel Rosenbaum이 히나스테라에게 의뢰한 하프협주곡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작품의 진전에 대하여 자주 교감하였다.

Phillips의 수차례의 재촉편지에도 불구하고 히나스테라는 아르헨티나의 정치적 불안 속에서 오페라, 피아노 협주곡과 같은 다른 작품들을 쓰느라 하프 협주곡 작곡은 계속 보류되었다. 1963년 Inter-American Festival에서의 공연을 위해 스페인 태생의 하피스트 Nicanor Zabaleta도 히나스테라의 하프 협주곡의 완성을 위하여 아르헨티나의 Buenos Aires로 직접 가서 개인적으로 히나스테라와의 만남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 시기, Phillips는 은퇴를 하게 되고, 아쉽지만 Meyer와 Rosenbaum은 Zabaleta가 첫 공연에서 하프협주곡을 연주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게 된다. 이 때문에 Zabaleta는 하프 협주곡의 완성을 위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Zabaleta가 하프협주곡에 개입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작품의 완성은 1963년 Inter-American Festival에 맞춰서 이루어지지 않고, 2년 뒤인

---

11) http://web.a.ebscohost.com/ehost/pdfviewer/pdfviewer?sid=b59826f1-9a32-4960-bfd9-abcadc1ed569%40sessionmgr4003&vid=3&hid=4112

1965년 2월 18일 마침내 하프협주곡이 완성된다. Zabaleta는 Eugene Ormandy가 지휘하는 Philadelphia Orchestra와 첫 공연을 하게 되었고, 악보 공표를 위하여 Boosey와 Hawkes는 협상을 하게 된다. 그러나, 1965년 첫 공연 이후에도 악보의 수정작업은 더디게 진행되었다. 1967년 Meyer은 히나스테라에게 Washington National Symphony와의 하프 협주곡 연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이에 히나스테라는 연습용악보와 하프 페달, 운지법을 기록할 수 있는 2부의 복사본을 Meyer에게 보낸다.

1968년 1월 9일, Meyer은 개정된 버전으로 Guillermo Espinosa가 지휘하는 Washington National Symphony와 첫 공연을 하였다.

히나스테라 하프 협주곡은 마치 타악기 연주자들 같은 하프의 사용을 보였기에 하프 연주의 고정관념에 큰 차이를 보여 평론가들 사이에서 작품에 대한 호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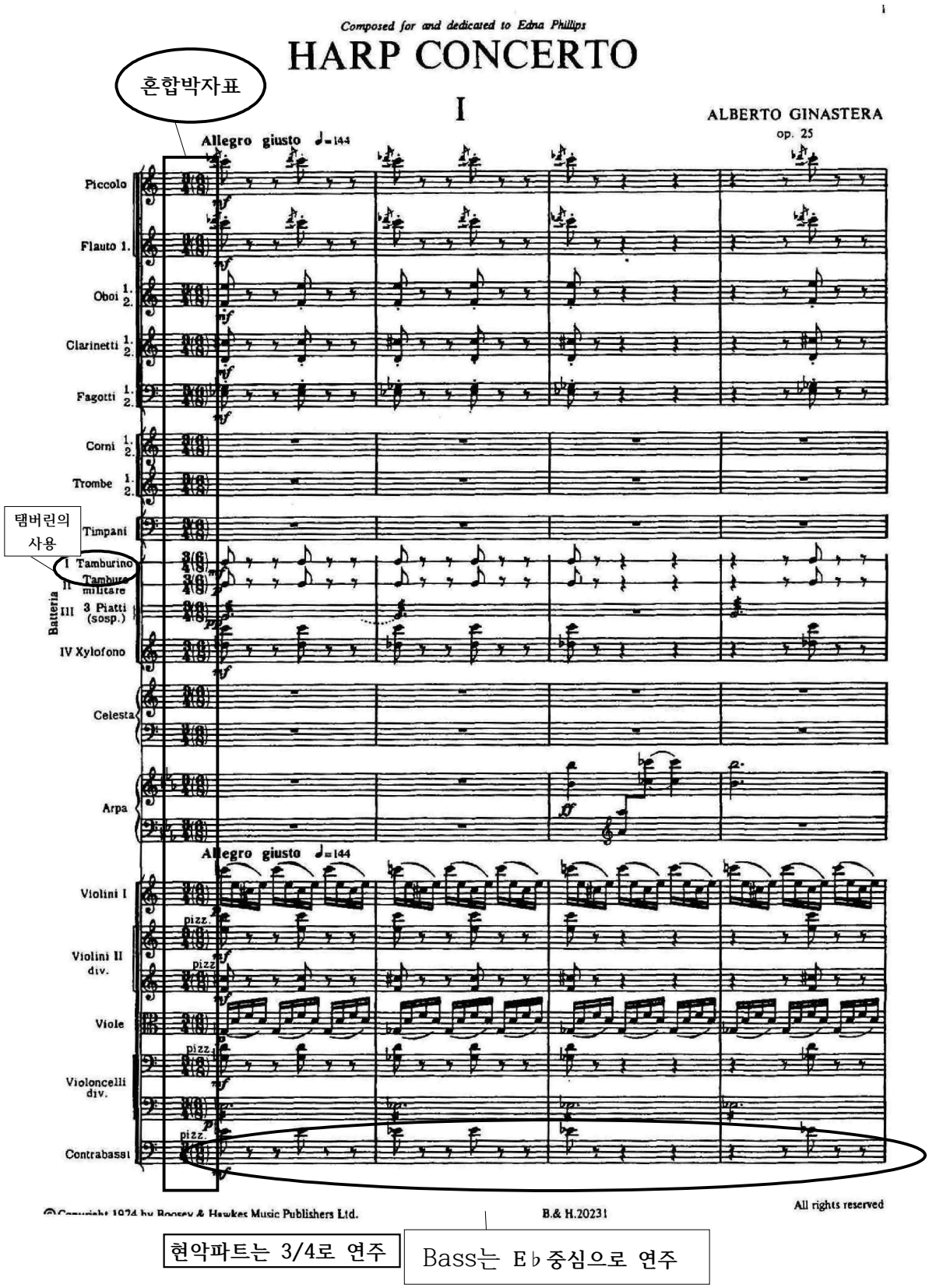
2. 제 1악장 - Allegro giusto

첫 악장은 일반적인 협주곡과 마찬가지로 고전시대 협주곡 형식에서 볼 수 있는 두 개의 대조되는 주제를 가진 소나타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로크 시대 폴리포니 양식에서 볼 수 있는 성부간의 모방도 찾아볼 수 있는 악장이다. 아울러, 주요 연결 부분에 화려한 하프 독주를 활용한 점도 특징적이다. 제시부에서 1주제는 사라지듯 diminuendo를 통하여 종지하고 2주제는 하프의 화려한 아르페지오와 글리산도를 통해 종지한 반면 재현부에서는 1주제는 하프의 카덴차로, 2주제는 사라지듯 종지하는 방식으로 변화를 주었다.

<표 4> 1악장 구성표

구분		마디
제시부	제 1주제	1-73
	제 2주제	74~129
전개부		130-252 (229~252 카덴짜)
재현부	제 1주제	253~287 (274~287 카덴짜)
	제 2주제	288~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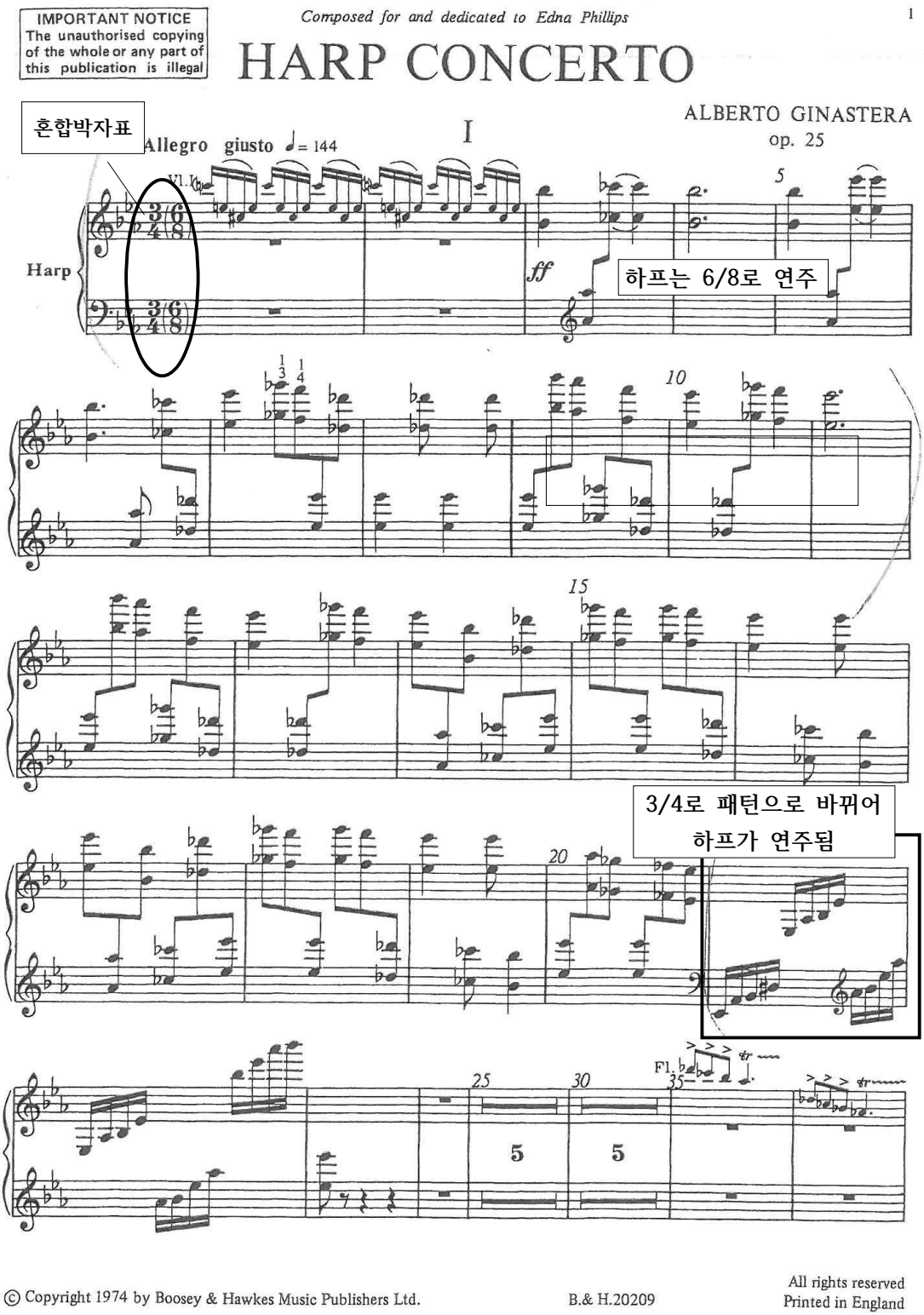
<악보 1> 오케스트라 스코어 마디 1-4



현악파트는 3/4로 연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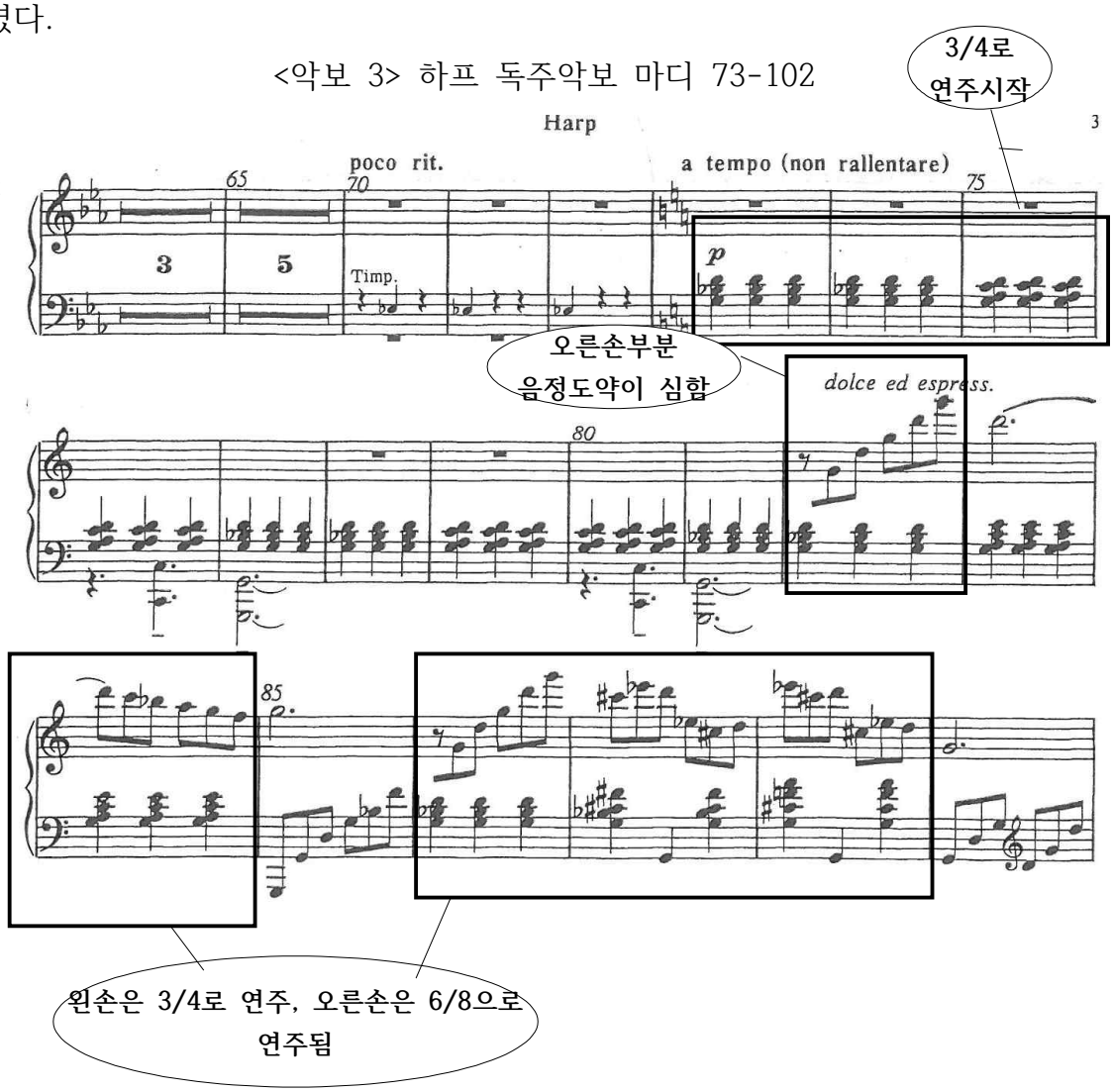
Bass는 E♭중심으로 연주

<악보 2> 하프 독주악보 마디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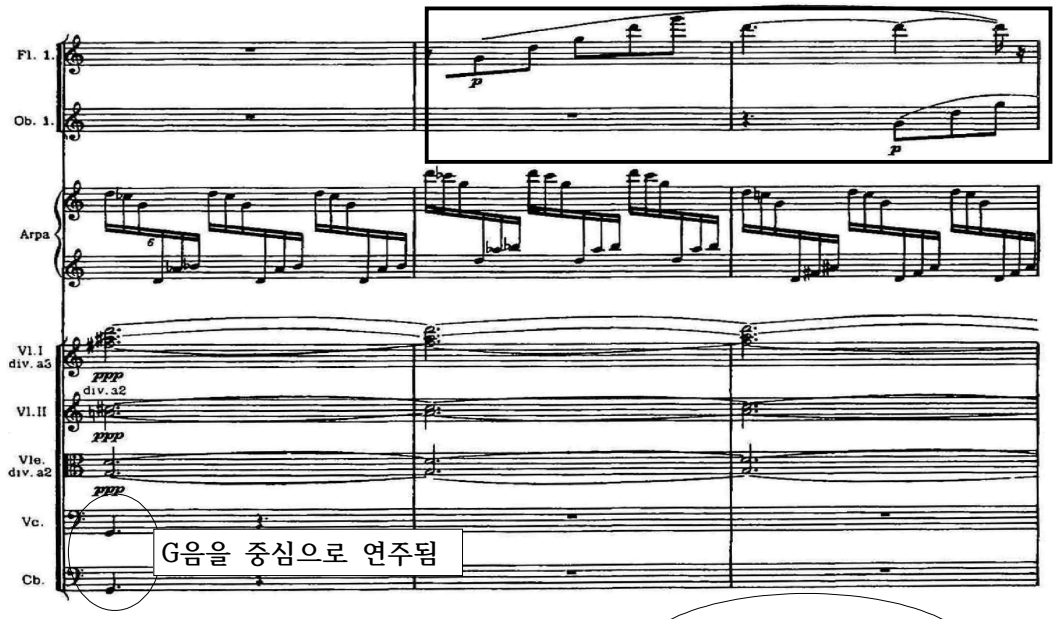


<악보 1> 과 <악보 2>의 제시부 1주제는 베이스 악기들이 E♭ 음을 중심으로 연주되고 있다. 오케스트라는 $\frac{3}{4}$과 $\frac{6}{8}$ 박자로 같이 연주되며 현악기들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16분 음표 음형들과 좁은 음역의 순차적 선율로 지속적인 빠른 움직임을 표현하였고, 하프 솔로 부분 역시 처음 시작은 $\frac{6}{8}$박자의 두 박자로 시작하며 옥타브를 ff로 강하게 연주 시작, 후반에는 $\frac{3}{4}$형식의 3박자로 화려한 아르페지오가 연주된다. 오케스트라와 하프 독주가 다른 박자 안에서 연주되는 것처럼 들리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민속적인 요소로 남미 타악기 중의 하나인 탬버린을 사용하여 음색적인 면에서 독특한 음향표현을 더하였다.

<악보 3> 하프 독주악보 마디 73-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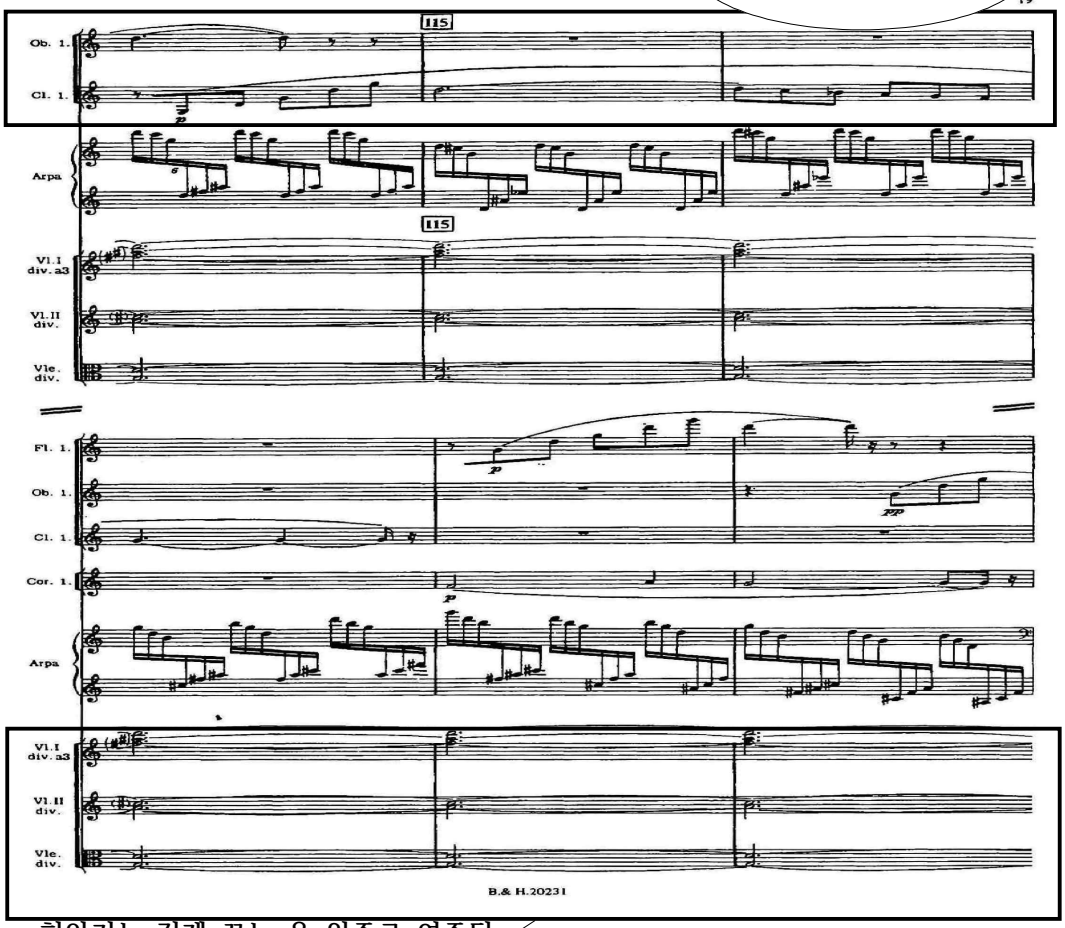


<악보 4> 오케스트라 스코어 마디 111-113



<악보 5> 오케스트라 스코어 마디 114-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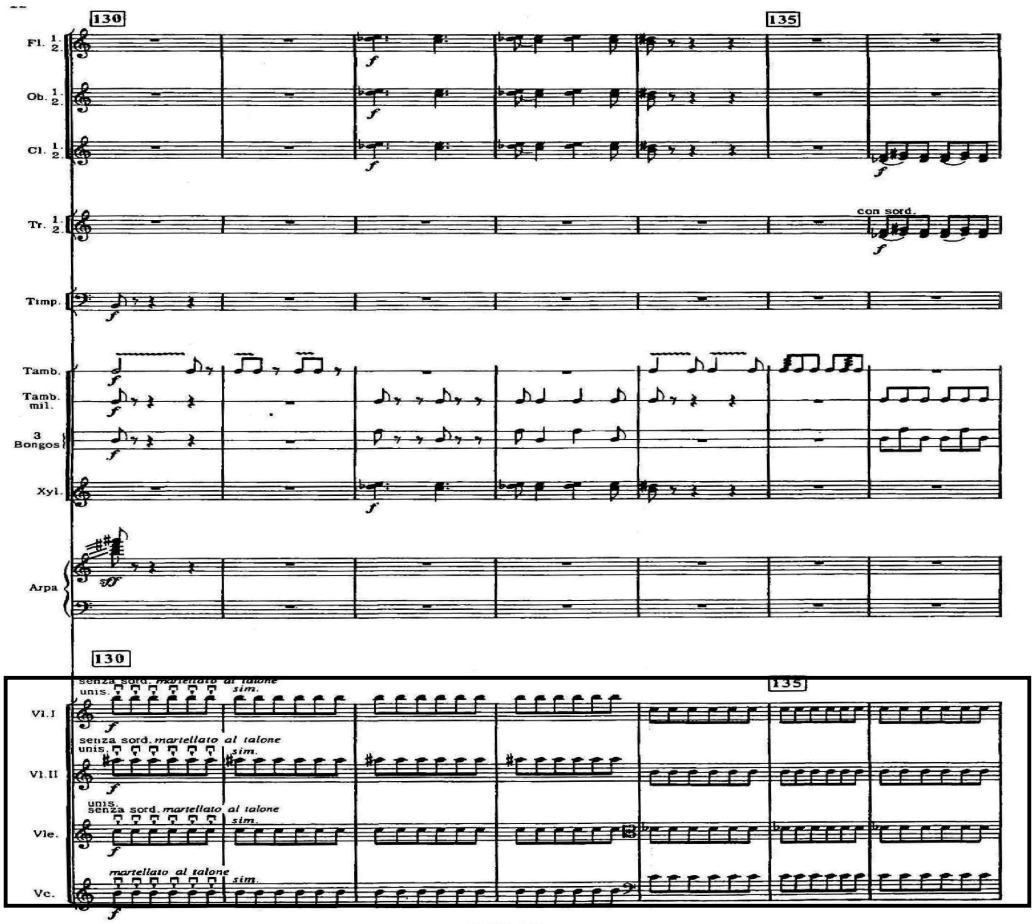
목관악기들이 제시부 제 2주제를 순차적으로 연주하고 있음



현악기는 길게 끄는 음 위주로 연주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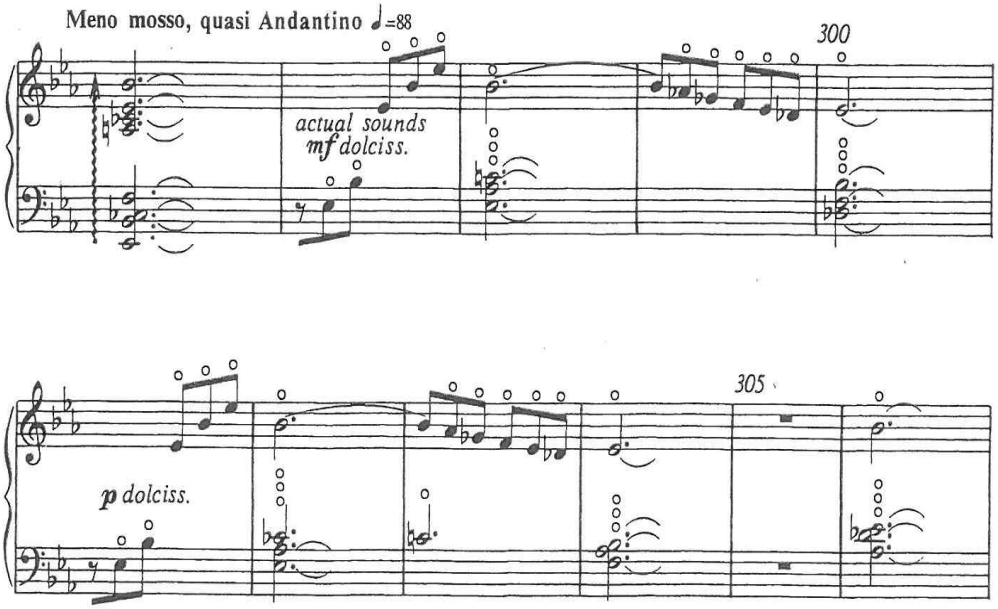
<악보 3>, <악보 4>, <악보 5> 제시부 2주제는 하프 독주가 p로 시작되며 오케스트라 베이스 악기들이 G음을 중심으로 연주되고 있다. 1주제에 비하여 2주제는 <악보 3>의 하프 독주 악보를 보면 왼손 반주는 $\frac{3}{4}$, 오른손 멜로디는 $\frac{6}{8}$으로 연주되며 특히 오른손 멜로디부분은 음정의 도약이 심하다. 1주제에서는 하프독주와 오케스트라가 똑같이 많이 연주되었다면, 2주제에서는 1주제와의 대비를 위해 오케스트라의 현악기들이 길게 끄는 음 위주로 연주된다. 또한 관악기들은 바로크시대 다성 음악에서 보여 지는 성부간의 모방 연주처럼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의 목관악기들이 제 2주제 선율을 순차적으로 연주하는 것도 특징이다.

<악보 6> 오케스트라 스코어 마디 130-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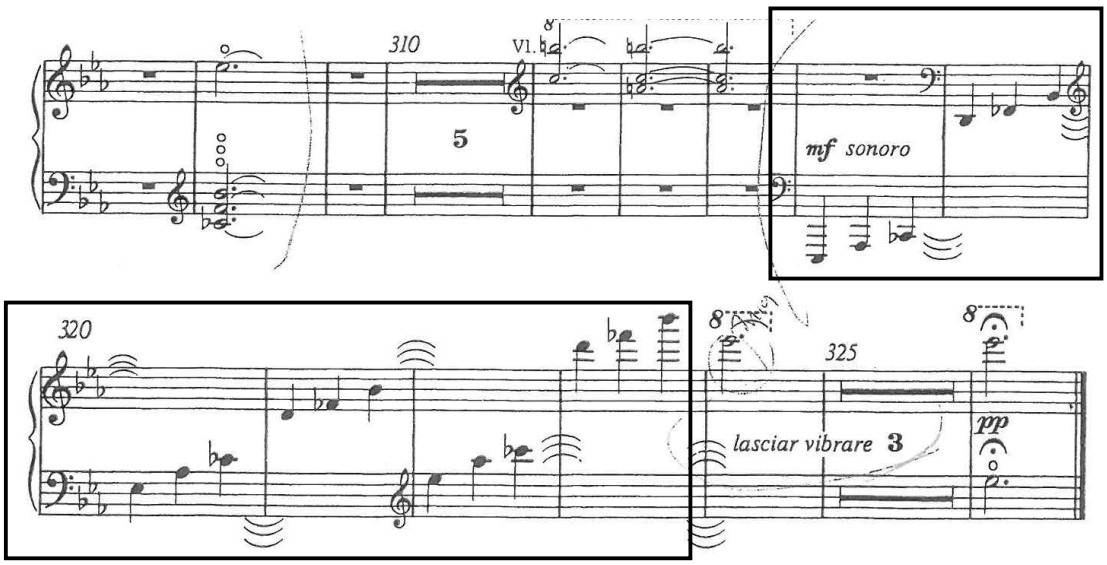
전개부는 오케스트라의 현악기들이 지속적인 8분 음표 위주의 리듬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는 제시부의 1주제에서 오케스트라부분의 끊임없는 16분 음표 리듬의 사용과 유사하게 동적이고, 긴장감 있는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쓰였다.

<악보 7> 하프 독주악보 마디 297-304마디



제시부 제 2주제 선율 형태와 같이 하프 독주 악보 297-304마디는 하모닉스로 선율이 연주된다. 하모닉스 연주를 mf와 p로 기보했는데, 연주자는 두 악상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연주하는 음정의 줄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고, 줄에서 튕길 때의 손가락 힘 조절을 하여야 맑고 영롱한 하모닉스 연주가 되며, mf와 p의 악상을 표현하여야 한다.

<악보 8> 하프독주악보 318-326마디



318마디에서 325마디는 클래식 기타 개방현 코드처럼 음정은 다르지만, 4도 음정 위주의 선율도약이 유사하다. 이 부분은 히나스테라의 주관적 민족 시기 에서 기타(Guitar)의 개방음(E-A-D-G-B-E)을 토대로 여러 가지 형태의 화성을 보여주는 음악적 특징을 보여준다. 하프연주자는 한음 한음의 모든 음이 들리도록 연주해야 하며 318마디 이후의 선율은 324마디의 마지막 E음을 제외한 나머지 음들은 모두 소리의 명확성을 위하여 왼손 두 번째 손가락으로 연주하는 것을 제안한다. 악보에는 오른손과 왼손이 번갈아 가며 연주하도록 제시되어있지만, 양손을 번갈아 가며 연주하면 울리는 선율이 끊기게 들릴 수가 있으므로, 저음 부분을 연주자가 편하게 연주 할 수 있는 왼손으로 333마디까지 연주하며, 왼손의 연주가 불편한 324마디 E음만 오른손 엄지손가락으로 연주한다. 327마디까지 연주자는 줄을 막지 않고 소리가 울리게 두다가 328마디 마지막음을 양손으로 여리게 연주하며 자연스럽게 곡이 종료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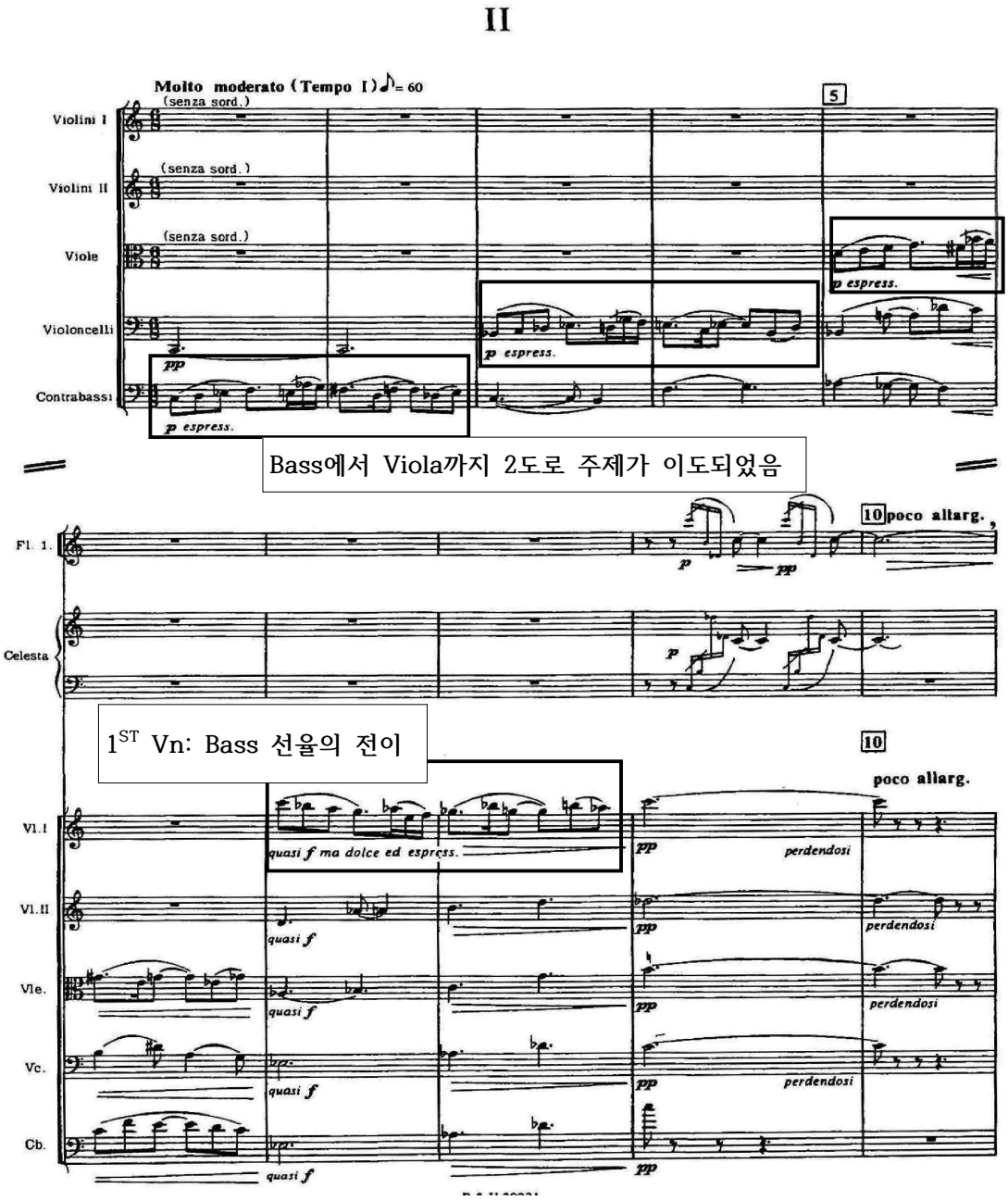
3. 제 2악장 - Molto moderato

2악장은 히나스테라 본인의 독자적인 음악적 표현을 보여주는 악장으로 주관적 민족주의 음악양식이 나타나있으며, 1악장과 같이 바로크시대 다성 음악에서 볼 수 있는 성부의 모방도 보여 지는 악장이다. 곡 시작은 느리게 시작하여 일반적이 3부 형식 안에서 서로 연관 없어 보이는 여러 양식들이 병렬적으로 등장한다. 마디 마디 짧은 간격으로 악기 편성과 음색이 다양하게 변화되며, 하프와 목관악기, 첼레스타 위주의 dialogue로 이루어져있다.
2악장 연주 전에는 악기 조율을 제안하는데, 하프 줄은 양의 창자로 만든 거트(gut) 줄이므로, 줄을 당기는 세기와 온도에 예민하다. 1악장에서 대부분 하프가 크게 연주되었기에 2악장 연주 시 음정이 안 맞을 수가 있으므로, 2악장 연주 시작 전 잠깐 악기 줄을 조율할 것을 제안한다.

<표 5> 2악장 구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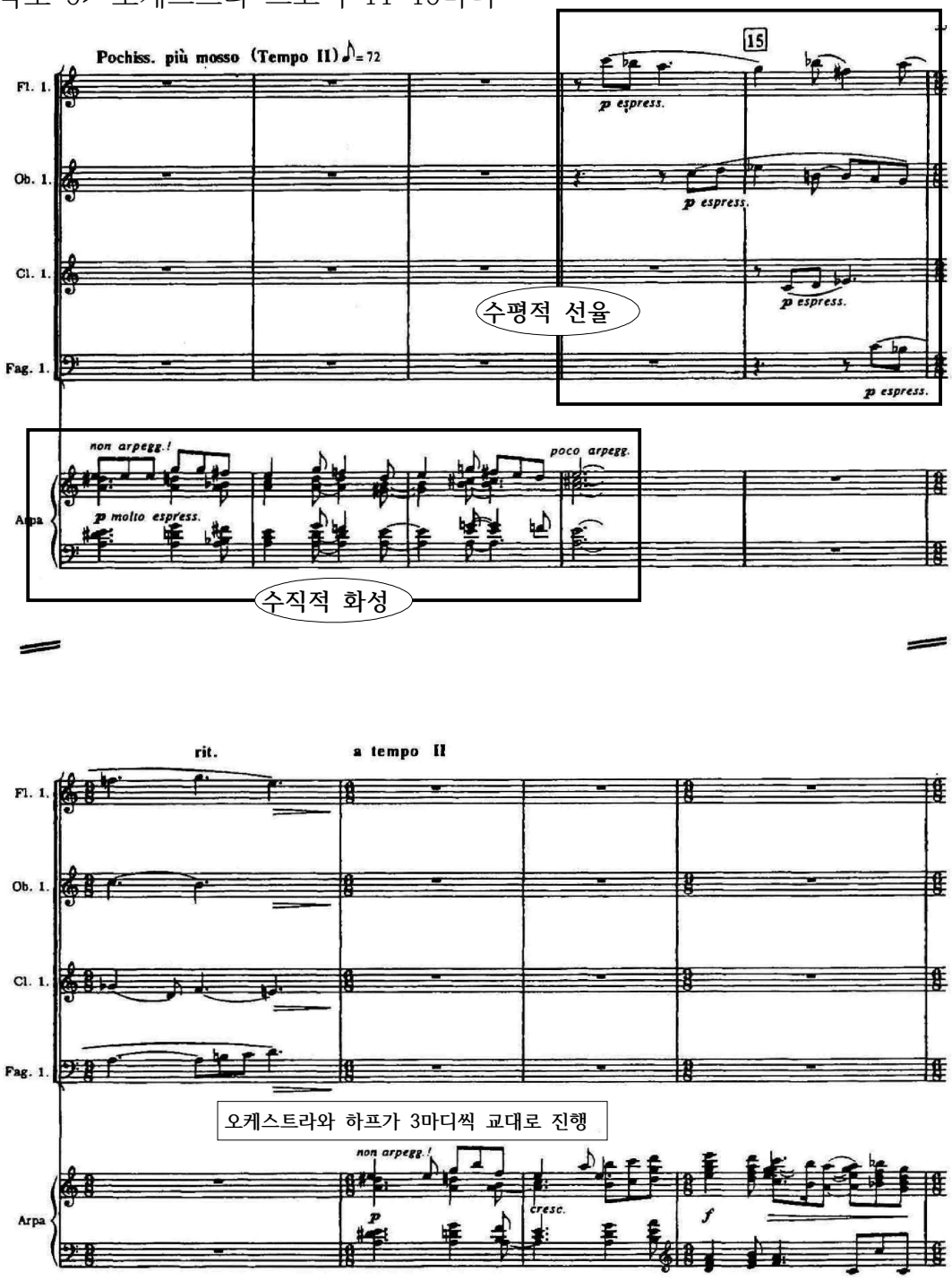
구분		마디
A	a	1-10
	b	11-16
	b'	17-22
	b''	23-27
B	c	28-38
	d(a')	39-41
	c e	42-50
A'	a'	51-58
	b	59-63

<악보 9> 오케스트라 스코어 1-10마디



오케스트라스코어 1-10마디까지는 바로크시대 때의 5도 모방을 똑같이 하진 않았지만 그 시대적인 성부가 서로 모방됐다는 점을 볼 수 있는 마디이다. 다만, 1st 바이올린은 베이스 선율이 전이 되어 연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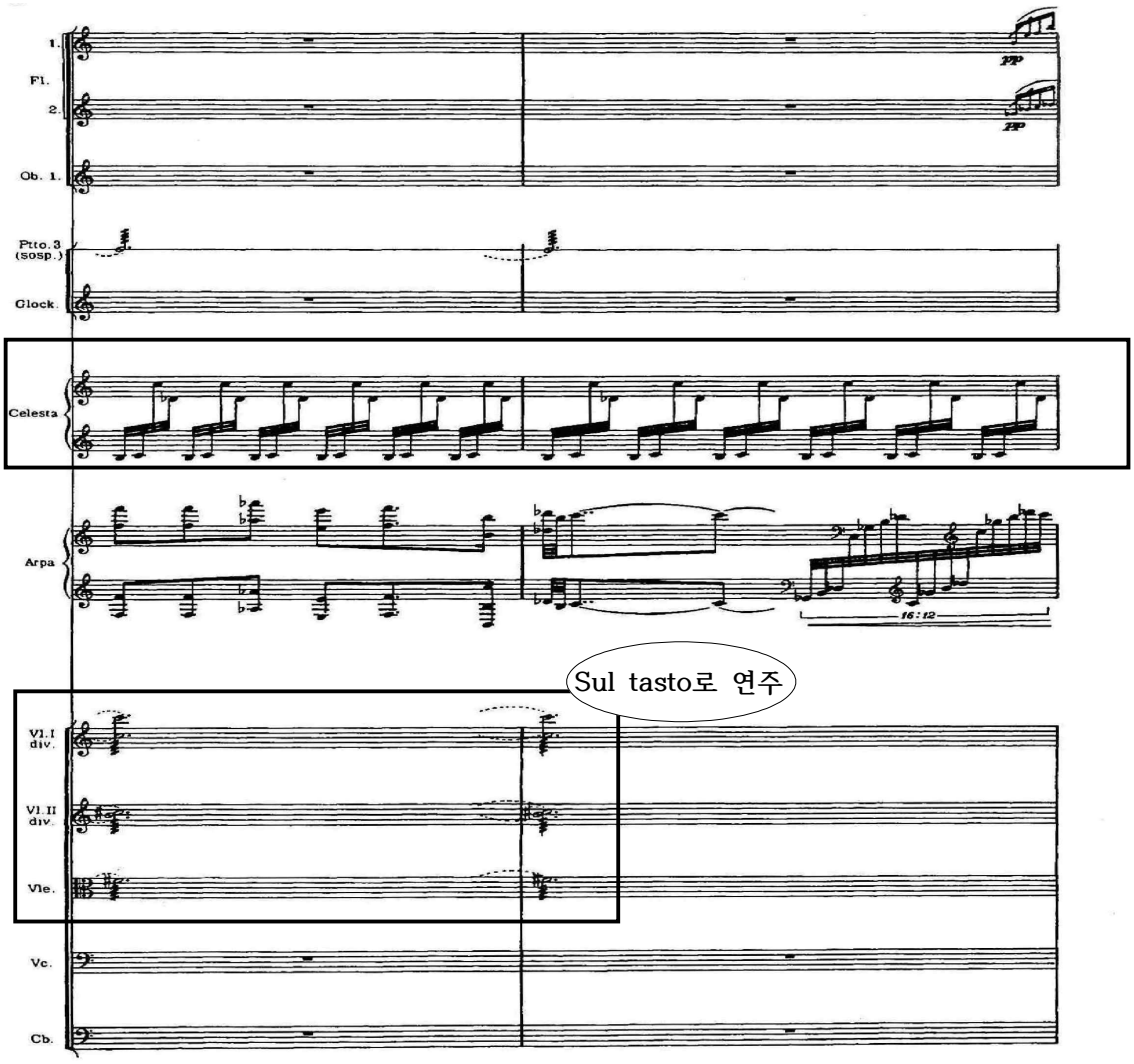
<악보 9> 오케스트라 스코어 11-19마디



하프는 복합적으로 합쳐진 수직적 화성으로 구성되있다면 14마디에서 16마디 목관악기들은 수평적 선율로 이루어져있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오케스트라의 목관악기들이(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바순) 각자의 선율을 가지고 있어 수직적 화성의 하프독주와 수평적 선율이 강조된 목관악기들이 거의
3마디씩 교대로 진행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프 연주는 화음을 아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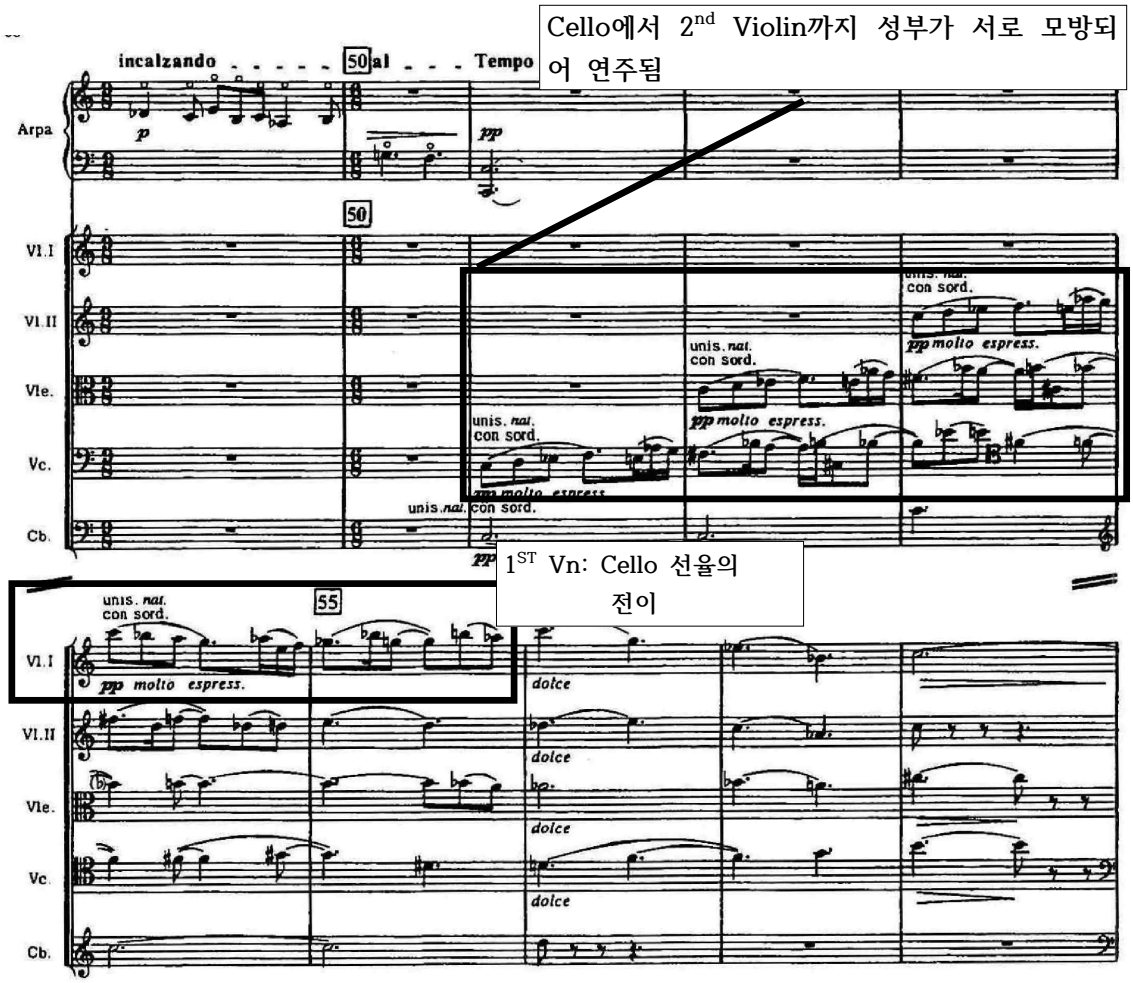
페지오로 연주하지 않기에, 구성된 모든 여섯 음정이 잘 들리도록 신경 써서 연주해야 한다.

<악보 10> 오케스트라 스코어 31-32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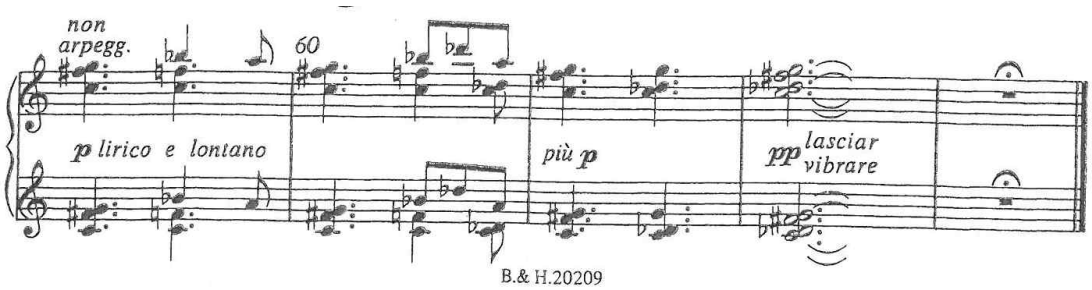


오케스트라에 첼레스타가 같이 연주되는 흔하지 않은 구성을 히나스테라는 자신만의 독특한 음향표현을 위해 사용하였다. 독특한 음향 표현을 위해 첼레스타는 시 도 도# 음정이 끊임없이 연주되고 있고 현악기들은 sul tasto(활을 지판 위에서 연주) 하는 기법으로 부드럽고 여린 소리를 연주하게 하여 첼레스타와 하프 소리가 돋보이게 하였다.

<악보 11> 오케스트라 스코어 51-58마디



<악보 12> 하프독주 59-63마디



51-58마디는 현악기들만으로 구성돼있으며 연약한 소리를 표현하기 위하여 현악기에 약음기를 사용하여 연주되도록 돼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51-54마디까지 베이스는 C음을 길게 연주하고 있고, 그 위로 차례대로 첼로, 비올라, 2nd 바이올린이 완전 8도로 시작하는 성부 모방으로 연주되어 마치 C음을 강조하듯이 연주하게 돼있다. 1st 바이올린은 첼로 선율의 전이로 다른 현악기들과 다르게 연주된다.

하프 독주 59-63마디는 2악장에서 하프가 처음 연주 된 마디 11-14마디와 비교했을 때 단 3도 올라간 화음으로 연주되며 62마디까지 블록코드 연주법으로 연주 후 줄을 막지 않고 소리가 울리게 두어 자연스럽게 곡이 종료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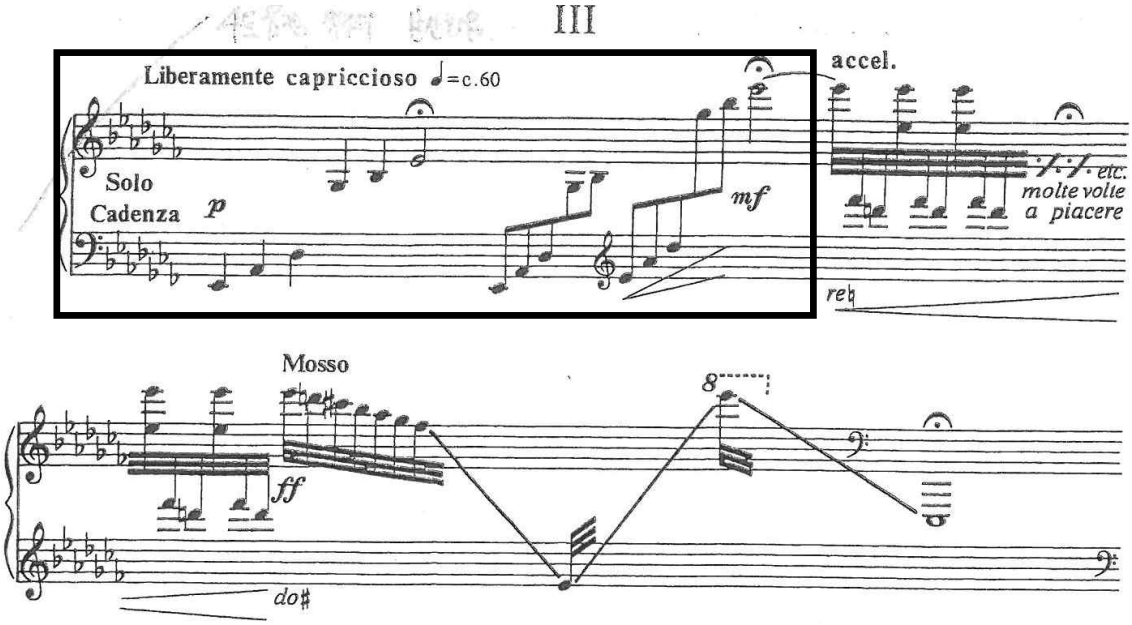
4. 제 3악장 - Liberamente capriccioso-Vivace

제 3악장은 1마디 이전까지 히나스테라의 주관적 민족주의 때 많이 사용된 기타 (Guitar) 개방현 코드음정의 시작으로 하프의 독주 카덴차로 돼있으며, 이전 전통 유럽하프 곡에서는 사용되지 않은 페달 슬라이드와 휘슬 연주법 사용 등 현대적 연주기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이후 ABACA의 론도 형식으로 빠르게 지속적으로 질주하는 리듬이 이어진다. 여린 다이내믹에서부터 점차 쌓아가는 Crescendo식 진행을 일관되게 고수하며 가장 강한 다이내믹과 강세가 형식의 구분점이 된다. 오케스트라와 독주하프의 교대에서 tutti로 합쳐져 종지하며, 곡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프연주보다 봉고, 카우벨의 민속 타악기들이 두드러지게 사용되어 리듬을 강하게 부각시키며 화려하게 곡이 종료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표 6> 3악장 구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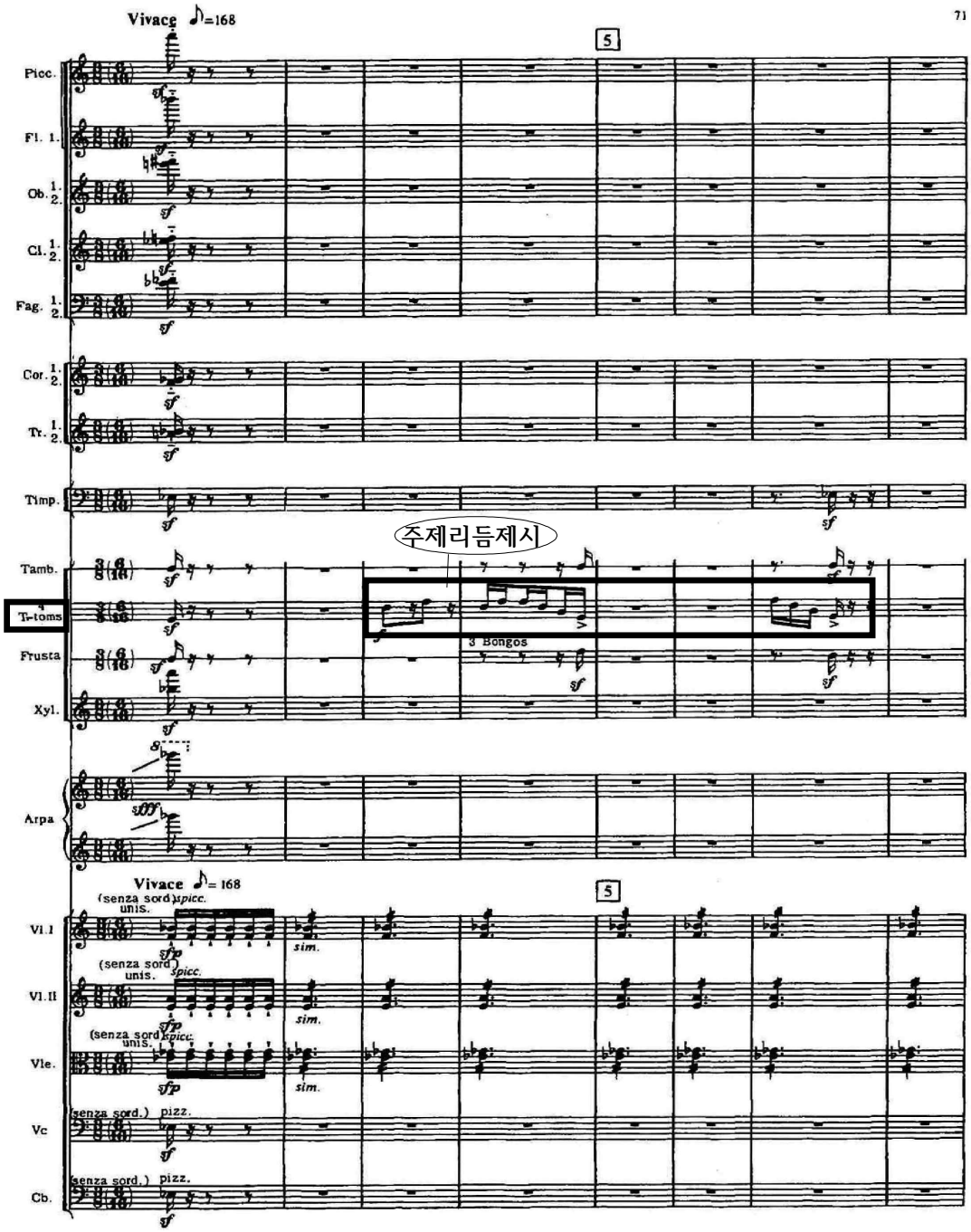
구분		마디
A		1-37
B	b	38-49
	b'	50-69
	b''	70-83
A'		84-113
C	c	114-149
	c'	150-160
	c''	161-173
A''		174-196
Coda		197-236

<악보 12> 하프 Solo Cadenz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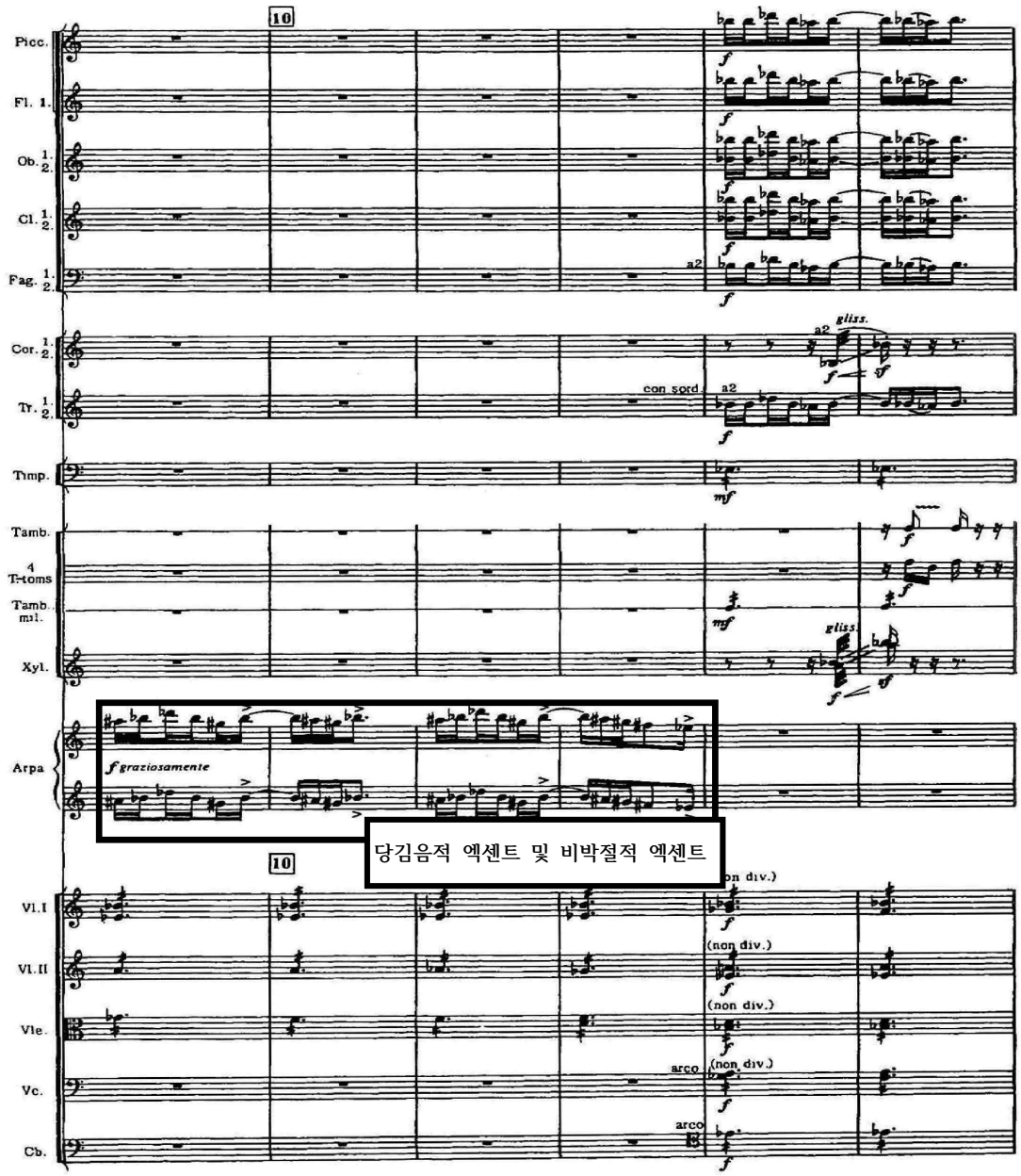


이전 시대들의 하프 콘체르토에서는 1악장과 2악장 후반부에서 카덴차가 연주되었지만, 히나스테라 하프 콘체르토에서는 1악장 후반부와 3악장 도입부분에 카덴차가 연주되어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악상이 p로 시작되는 카덴차 1마디는 기타(Guitar) 개방현 코드음정을 사용 (E-A-D-G-B-E)하여 히나스테라 작곡가의 작곡시기 중 주관적 민족주의 음악적 특징을 나타내었다. 그 후에는 속도감 있는 분위기 표현을 위하여 8분 음표로 다시 기타 개방현(Guitar) 코드음정을 사용, 뒤이어 ff의 글리산도가 연주되어 분위기가 고조된다.

<악보 13> 오케스트라 스코어 1-8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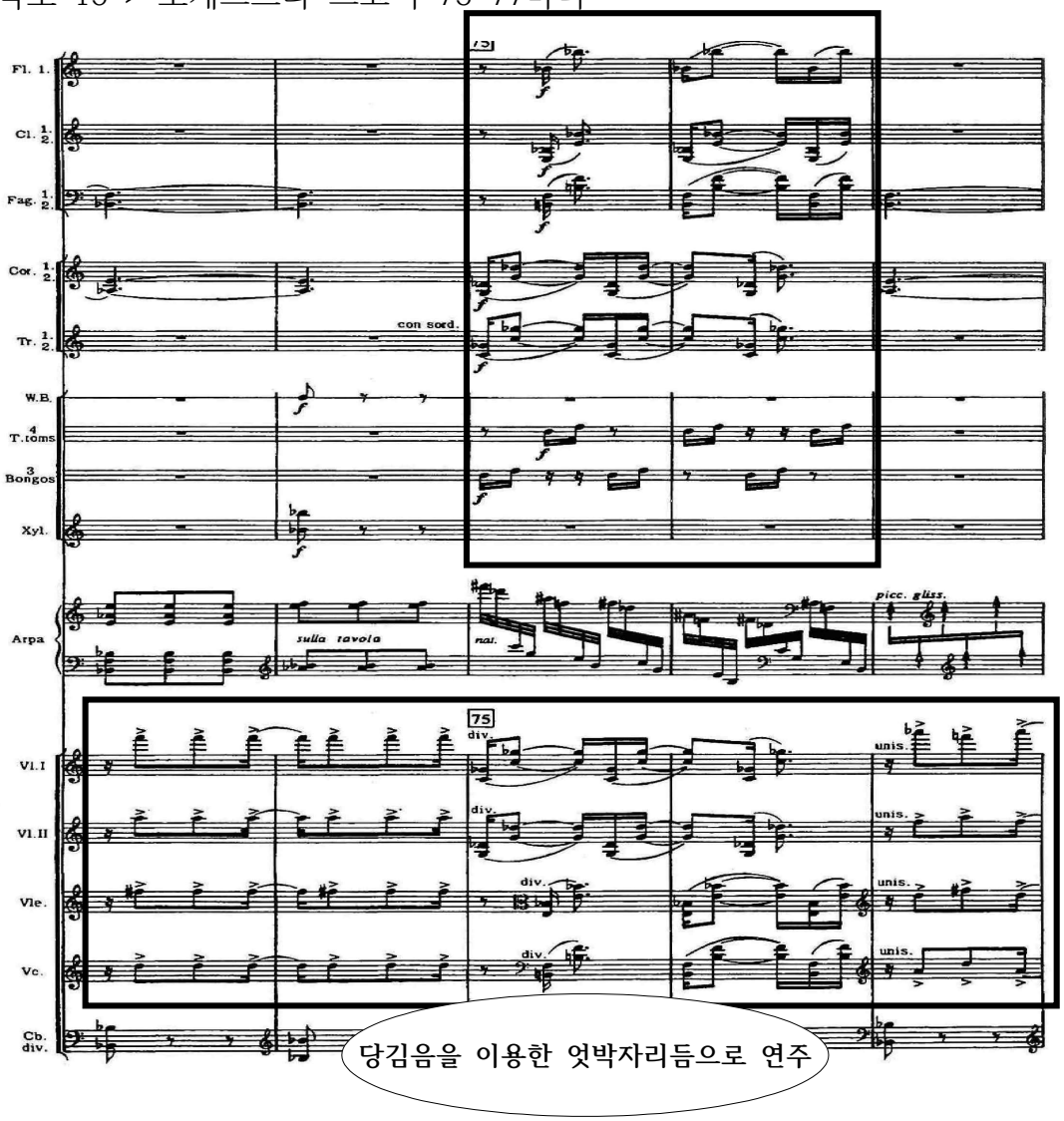


<악보 14> 오케스트라 스코어 마디 9-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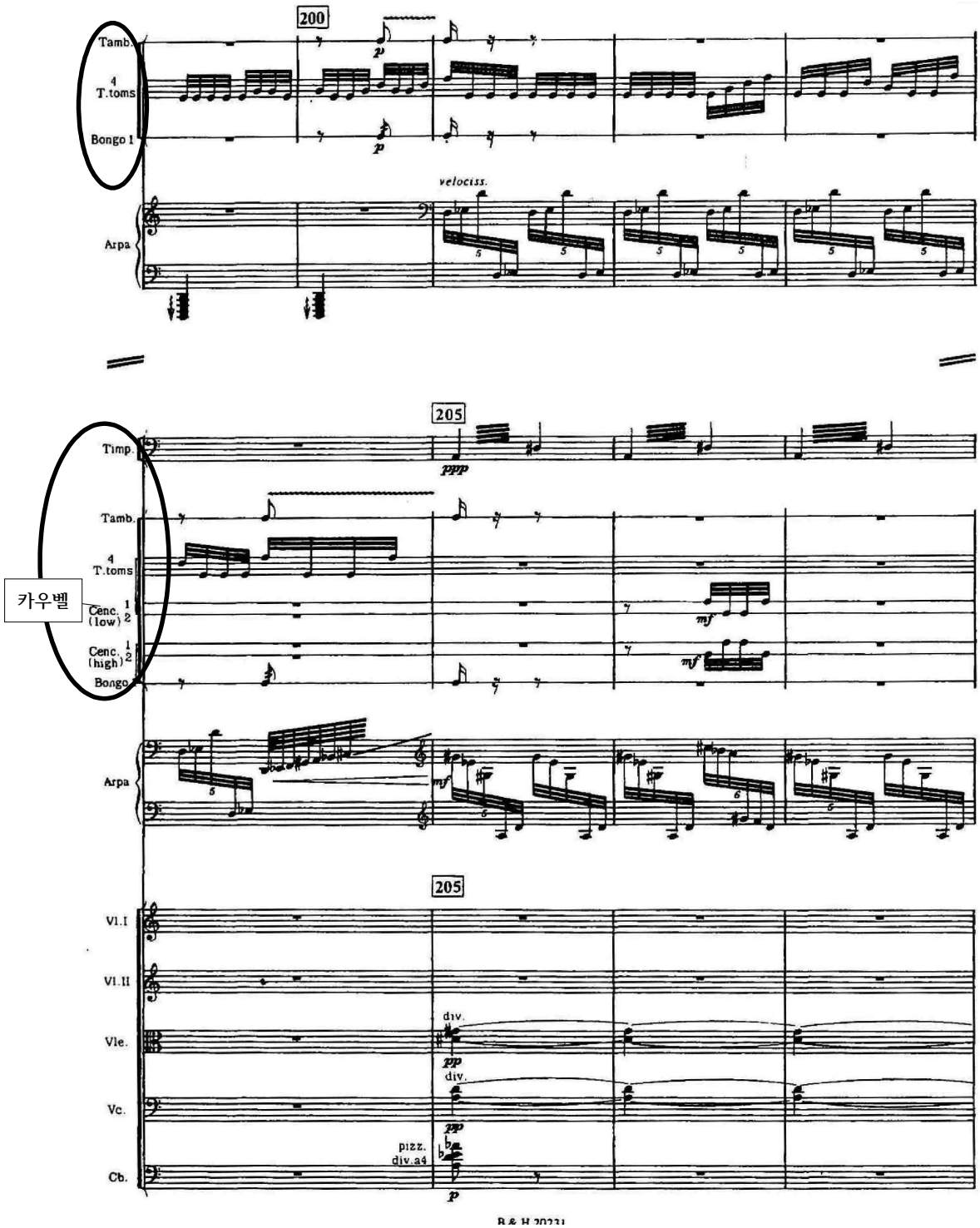
3악장 처음 시작을 Tom-tom악기로 주제리듬을 제시하면서 뒤이어 하프 독주는 Tom-tom 악기가 앞서 연주한 주제 리듬을 옥타브 유니즌으로 연주한다. 하프 독주부분을 보면 선율이 f로 시작되며, 마지막 음정마다 강세 표시가 되어있는데, 당김음적 엑센트 및 비박절적 엑센트로 강세가 표시되어있다. 이는 리듬적 흥미유발과 긴장되는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함으로, 하프 연주자는 강세 표시된 음정이 두드러지게 들릴 수 있도록 음정을 강조하여 연주한다.

<악보 15 > 오케스트라 스코어 73-77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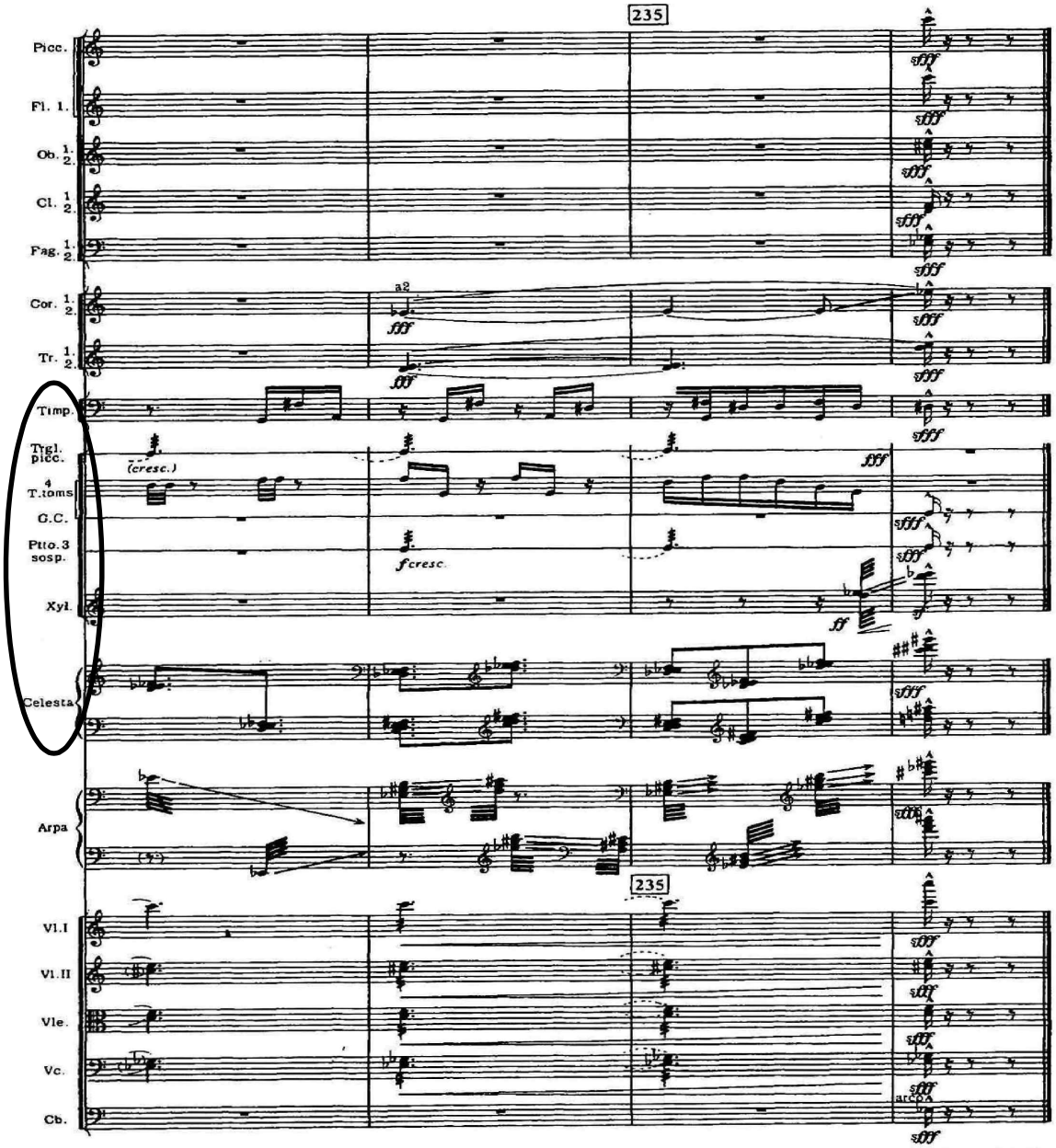


<악보 15>의 73-77마디는 오케스트라 모두 당김음을 이용한 엇박 리듬이 강조된 마디이다. 하프독주가 넓은 음역을 화려한 아르페지오로 연주한다면 오케스트라는 당김음 리듬을 강조하며 연주하고 있다.

<악보 16> 오케스트라 스코어 199-207



<악보 17> 오케스트라 스코어 233-236



빠른 템포의 Tom-tom 연주와 뒤이어 나오는 지속적인 하프의 아르페지오와 민속악기인 봉고, 탬버린, 카우벨의 사용으로 주관적 민족주의 특징이 나타나며, 하프협주곡임에도 불구하고 하프보다 타악기가 더 돋보이게 연주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많은 타악기의 사용으로 속도감과 음향적 독특함을 표현하였고, 팀파니의 지속적인 음정 연주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고조되며 곡은 종료되다. 하프 연주자는 205마디 이후부터 시작되는 다양한 개수로 이루어진 아르페지오를 정확한 템포 안에서 연주되도록 해야 하며, 곡의 마지막 부분인 글리산도 연주 역시 분위기의 고조를 위해 아주 힘껏 연주해야 된다.

V. 결 론

본 논문의 목적은 히나스테라의 주관적 민족주의시기와 신표현주의 시기에 쓰여진 하프협주곡 Op. 25의 분석과 연주법을 연구해 봄으로써, 하프독주와 오케스트라 편성에 구성된 다양한 전통적인 타악기들의 연주로 화려하고 열정적인 음악표현과 하프의 전통적, 현대적 연주기법의 사용을 찾아볼 수 있었다. 히나스테라의 하프 협주곡은 3악장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 번째 악장은 하프 카덴차로 시작된다.

1악장은 제 1주제와 제 2주제를 가진 제시부-발전부-재현부의 전형적인 소나타 형식으로 구성되어있다. 주관적 민족시기에서 히나스테라가 많이 사용한 기타(Guitar)의 개방음 형태의 화성과 남미 타악기인 탬버린의 사용, $\frac{3}{4}$과 $\frac{6}{8}$ 혼합박자로 오케스트라와 하프독주의 2분박, 3분박 리듬의 조합으로 구성된 악장이다. 2악장은 하프와 목관악기 위주의 연주로 되어있으며, 느린 악장의 일반적인 3부 형식 안에서 마디마디 짧은 간격으로 악기편성과 음색이 다양하게 변화되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바로크시대 폴리포니 양식처럼 성부간의 모방으로 선율이 연주 된다는 점도 특징인 악장이다. 3악장은 하프 카덴차로 히나스테라의 주관적 민족주의시기 때 사용된 기타 개방현 코드음정으로 시작된다. 카덴차 이후에는 ABACA의 론도형식으로 되어있으며 당김음적 엑센트 및 비박절적 엑센트의 사용, 탐탐, 봉고, 탬버린, 카우벨 등의 타악기 연주로 속도감과 음향적 독특함이 표현된 악장이다.

하프 콘체르토에 사용된 하프 연주주법은 크게 전통적인 주법과 비전통적인 주법사용으로 볼 수 있다. 현대적인 주법으로는 예를 들면, 페달슬라이딩, 손톱글리산도, 휘슬, 타악기처럼 악기를 두드리는 연주주법을 들 수 있다. 비 전통 적인 하프 연주주법으로 전통적인 연주 주법에서 벗어나 색다른 음소재의 사용으로 얻어지는 음향효과로 하프음악에 있어서 새로운 음악 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금까지 연구를 통하여 히나스테라는 민속 요소위에 현대적인 기법을 조화시켜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음악양식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하프 음악의 표현적 스펙트럼을 확장시켜 준 작곡가라 할 수 있다. 히나스테라의 하프협주곡 연주를 할 때 중요한 것은 연주자가 히나스테라 작곡가의 음악관과 이를 표출하

기 위한 도구로서의 하프연주주법을 잘 이해하고 조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Grout Palisca Burkholder, 민은기, 오지희, 이희경, 전정임, 정경영, 차지원 옮김,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이앤비플러스, 1985.

“Alberto Ginastera”, Gilbert Chase, The Musical Quarterly, vol. 43, No. 4(October, 1957)

D. Schwartz-Kates, “Ginastera, Alberto”, in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2nd ed., Stanly Sadie(ed.) London: Macmillan Publishers, Ltd., Vol.IX, 2001.

ORPHEOUS, 김현욱, 한국 하프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2003.

PRACTICAL METHOD for GRAND HARP and IRISH HARP, Josef Molnar, ONGAKU NO TOMO SHA, 1991.

작곡가를 위한 현대 하프 기보법, 박근정 저, 도서출판 수문당, 2005.

Alberto Ginastera, "Homage to Bela Bartok", Tempo No. 136 (March, 1981)

Samuel Adler, The Study of Orchestration,「관현악 기법연구」, 윤성현 번역, 도서출판 수문당, 1995.

<인터넷 웹사이트>
http://web.a.ebscohost.com/ehost/pdfviewer/pdfviewer?sid=b59826f1-9a32-4960-bfd9-abcadc1ed569%40sessionmgr4003&vid=3&hid=4112

<악보>
Ginastera, Alberto. *Harp Concerto*, Op. 25, Harp solo with orchestra, New York: Boosey and Hawkes, 1974.

Abstract

A Study on A. Ginastera's Harp Concerto Op. 25

Kyung Ha Lim
Department of Music, Harp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lberto Ginastera, the 20th century Argentine composer, left behind many unique works which are characterized as synthesis between folk music elements and various contemporary musical vocabulary. He himself classified his compositional style into three periodic divisions, such as being the first (Objective Nationalism, 1936-1947), the second (Subjective Nationalism, 1947-1957), and the third period (Neo-Expressionism, 1957-1983). The Harp Concerto Op. 25 was completed in February 1965 and has general characteristics in the style of the second and the third periods.

The thesis introduces a brief review on the life of the composer, and examines his distinct musical tendency throughout the three individual periods. In addition, the study concentrates on the general analysis of each movement of the concerto and the use of various instrumental devices both traditionally and contemporarily employed in this composition.

Through analysis, we apprehend that the first movement, in traditional sonata form, is characterized by frequently intermixed use of duple and triple meter between solo instrument and the orchestra, using open string guitar chords and percussive folk instruments which are typically southern American ethno-musical devices. The second movement, in ternary form, is basically a dialogue between

harp and the woodwind instruments. A lengthy cadenza initiates the third movement which is in rondo form.

The instrumental playing techniques employed in this harp concerto are *Arpeggio*, *Lasciar vibrare, Block chord, Harmonics, Glissando, pre's de la table* which are considered to be traditional harp playing techniques, and *Pedal sliding, Fingernail glissando, Whistle* and *Percussive devic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contemporary playing techniques. Through these various techniques new possibilities of acoustical effects were experimented expanding the spectrum of creative musical expression.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overall structural design of the work and provide detailed playing method on each playing techniques used in this concerto. Through the availability of optimum range of diverse technical facilities, one can acknowledge the compositional ideal that Ginastera conceptualized in the Harp Concerto Op. 25.

Key Words: Ginastera, Harp

Student ID Number: 2011-21812